

難經中 經絡條에 關한 研究(I)

- 二十三難과 二十四難을 中心으로 -

玄東喆·金容辰·尹暢烈*

I. 緒 論

東洋醫學은 古代로부터 漸次로 發展하여 오다가, 春秋戰國時代와 東漢末사이에 이르러서 크게 發展하였고 學術的인 體系가 이루어졌다. 이 時期에 著作된 《黃帝內經》¹⁾과 《難經》은 基礎醫學의 基盤을 이루었고, 《神農本草經》은 本草學과 方劑學의 嚆矢를 이루었으며, 《傷寒雜病論》은 臨床醫學 發展의 契機가 되었다²⁾. 특히 《內經》은 現存하는 東洋醫學 最古의 書籍으로, 그 內容이 豊富하여 基礎理論으로부터 疾病說明, 診斷, 治療, 養生, 鍼灸 등에 이르기까지 仔細히 記載하고 있다. 그 中에서도 基礎理論部分은 過去 醫學理論의 總結일 뿐만 아니라, 이후 一千餘年 東洋醫學 理論의 準則이 되었다. 東洋醫學 理論이 宋元 以後에 發展된 점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基本的인 問題에서는 《內經》의 規範을 넘지 못했으므로 《內經》의 經典적 意義는 자못 크다 하겠다³⁾.

《難經》은 問難·答難의 形式으로 古醫經을 解釋한 理論書이다. 全書는 모두 81個의 問題를 討論하였으므로 八十一難이라 稱하기도 하는데, 討論한 問題는 대부분이 《內經》에 提示된 것이다⁴⁾. 著作者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說이 있으나, 《內經》과 秦越人의 思想을 이어받은 後代人들의 改修·補充·整理를 거쳐서 東漢人에 의해 著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⁵⁾.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1) 以下 《內經》이라 簡稱한다.

2) 北京中醫學院, 中醫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4年, p.3~p.6.

3)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年, p.40~p.41.

4) 洪元植, 上揭書, p.40~p.41.

5) 千柄泰,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關한 考察, 大田, 大田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3年, p43.

《難經》은 《內經》의 뒤를 이어 《內經》의 學術理論을 더욱 發展시켰는데, 《內經》의 難解한 文章을 質問하면 소상히 對答하는 式으로, 《內經》의 精微한 뜻을 闡揚하였고 《內經》의 奧義를 發揮하였다. 그러므로 清代의 《難經》學者인 丁履中은 “扁鵲去古未遠하고 能徹其遠委하여 合靈素之一十八卷 各八十一篇하여 批却道竅하고 條分縷析하여 共列八十一難하니 亦述而不作之意也니라. 其辭雖出於靈素이나 而暗者明之하고 繁者省之하고 缺者補之하고 複者略之하니 無微不徹이오 無義不該라. 故로靈素而下에 首推難經이라. 雖有繼起名賢이나 安能出其範圍哉아! 數千年來에 尙有人知靈素之義者는 獨賴此書之存이라”이라고 하였고, 古本難經凡例에는 “雖止八十一條이나 而內經之全旨已具라, …… 先讀難經하고 再讀內經하면 可也니라”라 하였으며, 元代의 名醫 滑伯仁은 “難經八十一篇 辭若甚簡이나 然而榮衛度數와 尺寸位置와 陰陽王相과 藏府內外와 脈法病能와 與夫經絡流注와 鍼刺俞穴이 莫不該盡하니 昔人有以十三類統之者하여 於乎此經之義에 大無不包하고 細無不舉니라”라고 하였다.⁶⁾

이와같이 《難經》은 《內經》을 研究하기 위한 入門書⁷⁾이면서, 《內經》의 理論을 明確하게 說明을 加한 註解書이면서, 《內經》의 核心을 整理한 重要한 書籍으로 여겨왔다.

그리고 《難經》은 獨創的인 理論을 提示하여⁸⁾, 《內經》의 未備한 것을 補充하면서 《內經》의 理論을 充實케 하였다. 脈學에 있어서는 獨取寸口를 診脈의 標準部位로 定하였고(1難) 獨創的인 脈學의 原理를 자세히 밝혔다(1難~21難). 經絡에 있어서는 奇經入脈의 意義와 機能에 대하여 創論하였고(24難), 臟腑에 있어서는 左腎右命門說을 最初로 提出하였으며(36難) 腎間動氣說을 創案하였으며(8難) 三焦를 原氣之別使라 하여 三焦와 腎間動氣의 關係를 創說하였다(38難, 66難). 疾病에 있어서는 傷寒(58難)⁹⁾과 積聚(56難)와 泄瀉(57難)에 대하여 各各 다섯가지로 明確하게 나누어 說明하였고, 俞穴과 鍼灸에 있어서는 八會穴의 作用에 대하여 創論하였다(45難)¹⁰⁾.

이와같이 《難經》은 그 內容이 《內經》에 提示된 것이나 豊富하고 獨創적인 發想으로 《內經》의 理論을 闡明하고 發展시켜 後代醫學의 理論研究와 臨床實際에 深대한 影響力을 끼쳤으므로, 《內經》과 함께 醫學의 祖宗으로 尊重받고

6) 唐湘清, 難經今釋, 臺北, 正中書局, 1983年, pp.2~3.

7) 千柄泰, 上揭書, p.3.

8) 黃維三, 難經發揮, 臺中, 中國醫學院出版組, 1990年, p.1~p.4.

9) 洪元植, 上揭書, p.95.

10) 黃維三, 上揭書, p.1.~p.4.p.234.

있는 것이다. 11) 그러므로 宋代 大文學家인 蘇東坡는 “醫之有難經하야 句句皆理하고 字字皆法하니 後世達者는 神而明之리라 ……”라고 極讚하였다.

《難經》이 出版된 以後에 註解를 加한 歷代醫家는 數十名이 있으나, 失傳된 것도 적지 않으므로 現存하는 것은 20餘家에 不過하다¹²⁾. 《難經》에 대한 歷代研究는 대체로 註解·註釋·校勘을 通하여 原文의 理解를 도모하고 原文中の 錯簡과 缺漏를 指出·補完하고, 編次를 再整理하는 등의 方法으로 進行되어 왔다¹³⁾. 《難經》에 最初로 註를 加한 사람은 三國時代 吳나라의 太醫令 呂廣으로 알려졌으며, 以後에 唐代의 楊玄操, 宋代 丁德用·虞庶·楊康侯·龐安時·李子野가 있고, 金元時代의 紀天錫·張元素·袁淳甫·謝縉孫·滑伯仁이 있으며, 明代에는 熊宗立·張世賢·馬時가 있고, 清代에는 徐靈胎·丁錦·黃元御·葉霖이 있다. 近代에는 張山雷·孫鼎宜·蔡陸仙 등이 있으며, 現代에는 中國의 여러 中醫學院 教授들과 대만의 黃維三 唐湘清 등이 있다. 以外에 日本人으로 古室玄醫·滕萬卿·丹波元胤·加藤侖博·本間祥白 등이 있다¹⁴⁾.

《難經》은 內容上 脈學篇(第1難~第22難), 經絡篇(第23難~第29難), 臟腑篇(第30難~第47難), 疾病篇(第48難~第61難), 俞穴篇(第62難~第68難), 鍼法篇(第69難~第81難)으로 크게 여섯개의 篇으로 나눌 수 있다. 그 中에서 經絡篇은 나머지 다섯 篇의 基本이 되는데, 왜냐하면 經絡은 氣血을 運行시켜 臟腑와 臟腑의 配屬器官을 貫通하여 全身을 營養하며, 寸口와 人迎에 모였다가 다시 全身으로 보내지므로 人體의 生理·病理·診斷·治療 등에 있어서 모두 關與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經絡篇은 俞穴篇과 鍼法篇의 基本理論이 되고, 脈學篇을 爲始한 《難經》의 診斷理論의 基本바탕이 되며, 臟腑篇의 臟腑들의 機能과 關係를 說明하는 機轉體系가 되고, 疾病篇을 研究하는데 필요한 基礎理論篇이 된다.

그러므로 經絡篇은 《難經》을 研究하는 基礎 入門篇으로써 重要하며, 더 나아가 《內經》의 經絡說과 其他理論을 工夫함에 있어서도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思料된다. 이에 著者는 《難經》의 經絡篇 研究에 대한 필요성을 自覺하여, 韓國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難經》의 註解書를 모아서 考察하던 中, 一次的으로 經絡篇의 23難과 24難에 대하여 약간의 所得이 있기에 이에 報告하고자 한다.

11) 千柄泰, 上揭書, p.4.

12) 唐湘清, 上揭書, p2.p13.

13) 千柄泰, 上揭書, p44.

14)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年, p.3~p.4.

II. 研究方法

本篇의 全般的인 理解를 돕고 內容을 比較, 研究하기 위하여 各 難別로 原文에 縣吐를 하여 解釋을 하였고, 校勘 字句解를 加하였으며 各家註를 引用하여 縣吐 하였고 마지막으로 各難에 관한 學術的인 考察을 하였다.

- 1) 原文은 滑壽의 《難經本義》를 基準으로 하였다.
- 2) 縣吐는 傳來의 方式으로 하였다.
- 3) 解釋은 原文의 縣吐에 充實하도록 直譯을 爲主로 하였다.
- 4) 校勘은 各 引用文獻과 《內經》中에서, 原文의 글자가 다른 것을 調査하여 全體的인 文義에 비추어 보아 가장 妥當하다고 思料되는 것을 決定하여 提示하였다.
- 5) 字句解는 原文의 뜻에 妥當하다고 認定되는 音訓을 달았으며, 必要한 境遇는 說明을 追加하였다.
- 6) 各家註는 아래에 提示할 引用文獻의 註釋을 時代順으로 縣吐하여 提示하였다. 단 中國의 文獻을 우선 앞에 提示한 후, 뒤에 日本의 文獻들을 提示하였으며, 現代의 文獻은 特別한 것만을 선택하여 考察에서 다루었다.
- 7) 考察은 各家註의 內容과 《內經》을 土臺로 各難의 學術的인 內容들에 대하여 總括하고 整理하였다.
- 8) 本 論文에 대한 內容에 대한 解說은 脚註로 整理하였다.
- 9) 本 論文에 使用한 符號는 引用文獻은 《》, 校勘은 〈〉, 字句解는 ()로 表示하였다.
- 10) 本 論文에 引用될 註釋書는 다음과 같다.

〈引用文獻〉

著 者	書 籍	時代 및 나라	備 考
滑壽	《難經本義》	元	以下 《本義》라고 簡稱한다
王九思	《難經集註》	明	以下 《集註》라고 簡稱한다
張世賢	《校訂圖註難經》		以下 《圖註》라고 簡稱한다
徐靈胎	《難經經釋》	清	以下 《正義》라고 簡稱한다
葉霖	《難經正義》		以下 《經釋》이라고 簡稱한다
丁錦	《古本難經闡註》		以下 《闡註》라고 簡稱한다
賁元御	《難經懸解》		以下 《懸解》라고 簡稱한다

著 者	書 籍	時代및 나라	備 考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中國	以下 《匯海》라고 簡稱한다
凌輝星	《難經校註》		以下 《校註》라고 簡稱한다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以下 《校釋》이라고 簡稱한다
上 同	《難經譯釋》		以下 《譯釋》이라고 簡稱한다
王洪圖	《難經》		以下 《難經》이라고 簡稱한다
唐湘清	《難經今釋》	臺灣	以下 《今釋》이라고 簡稱한다
黃維三	《難經發揮》		以下 《發揮》라고 簡稱한다
滕萬卿	《難經古義》	日本	以下 《古義》라고 簡稱한다
加藤宗博	《難經裹腋》		以下 《裹腋》이라고 簡稱한다
本間祥白	《難經之研究》		以下 《研究》라고 簡稱한다

Ⅲ. 本 論

第1章 二十三難

第1節

【原文】

二十三難 曰 手足三陰三陽의 脈之度數⁽¹⁾를 可曉以不잇가?

然⁽²⁾이라. 手三陽之脈은 從手至頭하고 長은 五尺이니 五六合三丈이라. 手三陰之脈은 從手至胸中하고 長은 三尺五寸이니 三六一丈八尺과 五六三尺으로 合二丈一尺이라. 足三陽之脈은 從足之頭하고 長은 八尺이니 六八四丈八尺이라. 足三陰之脈은 從足至胸하고 長은 六尺五寸이니 六六三丈六尺과 五六三尺으로 合三丈九尺이라. 人兩足蹻脈⁽³⁾은 從足至目하고 長은 七尺五寸이니 二七一丈四尺과 二五·一尺으로 合一丈五尺이라. 督脈任脈各長은 四尺五寸이니 二四八尺과 二五·一尺으로 合九尺이라. 凡⁽⁴⁾脈長은 一十六丈二尺이니 此所謂十二經脈⁽¹⁾長短之數也라.

【解釋】

23難에 이르기를 手足三陰經과 三陽經의 길이를 可히 밝힐 수 있는가? 答이라. 手三陽의 經脈은 손을 좇아서 始作하여 머리에 이르고, 길이는 5尺이니 全體는 5尺의 6倍인 3丈이다. 手三陰의 經脈은 손을 좇아서 始作하여 가슴에 이르고, 길이는 3尺5寸이니 全體는 3尺의 6倍인 1丈8尺과 5寸의 6倍인 3尺으로써, 合하여 2丈1尺이다. 足三陽의 經脈은 발을 좇아서 始作하여 머리에 이르고, 길이는 8尺이니 全體는 8尺의 6倍인 4丈8尺이다. 足三陰의 經脈은 발을 좇아서 始作하여 가슴에 이르고, 길이는 6尺5寸이니 全體는 6尺의 6倍인 3丈6尺과 5寸의

6倍인 3尺으로써, 合하여 3丈9尺이다. 2個의 足躡脈은 발을 쫓아서 始作하여 눈에 이르고, 길이는 7尺5寸이니 全體는 7尺의 2倍인 1丈4尺과 5寸의 2倍인 1尺으로써, 合하여 1丈5尺이다. 督脈과 任脈의 各各의 길이는 4尺5寸이니 全體는 4尺의 2倍인 8尺과 5寸의 2倍인 1尺으로써, 合하여 9尺이다. 모두 計算하여 經脈의 길이는 16丈2尺이니, 이것이 이른바 經脈의 길이의 숫자다.

【校勘】

〈1〉十二經脈: 《闡註》와《懸解》에는 十二가 없고 經脈으로 되어있다.

【字句解】

(1) 度數: 同身寸法에 의한 經脈의 尺寸數를 가리킨다.

(2) 然: 應詞으로써 然과 通한다. 然은 應이니 말로써 對答하는 것이다.

(3) 躡脈: 奇經八脈에 속한 陰躡脈과 陽躡脈을 가리킨다. 자세한 것은 考察을 參考하시오.

(4) 凡: 總計(總計)할 범

【各家註】

1. 難經本義

此는 《靈樞》十七篇全文이라. 三陰三陽은 《靈樞》에 皆作六陰六陽하니 義尤明白하니라. 按經脈之流注컨대 則手之三陽은 從手走至頭하고 手之三陰은 從腹走至手하며 足之三陽은 從頭下走至足하고 足之三陰은 從足上走入腹이라. 此는 舉經脈之度數故로 皆自手足으로 言이라. 人兩足躡脈은 指陰躡也라. 陰躡脈은 起於眼中하야 自然骨之後로 上內踝之上하야 直上循陰股하야 入陰하야 循腹하야 上胸하야 裏行缺盆하야 出人迎之前하야 入頰內廉하야 屬目內眥하고 合太陽脈하니 爲足少陰之別絡也라. 足三陽之脈은 從足至頭로 長八尺이라하니 考工記에 亦云 人身長八尺이라하니 蓋以同身尺寸言之니라.

2. 難經集註

楊曰 一手有三陽이니 兩手合爲六陽故로 曰五六合三丈也라. 虞曰 手太陽之脈은 自兩手小指之端으로 循臂上行之耳珠子前하야 長五尺이니 兩手合一丈이라. 手陽明之脈은 起於兩手大指次指之側하야 上循臂하야 絡於鼻하야 左之右하고 右之左하야 長五尺이니 兩手合一丈이라. 手少陽之脈은 起於兩手小指次指之端하야 上臂終於耳前하야 長五尺이니 兩手合一丈이라. 故로曰 五六合三丈也라. 楊曰 兩手各有三陰하야 合爲六陰故로 曰三六一丈八尺이라. 虞曰 手太陰之脈은 起於中焦하야 下絡大腸하고 還循胃口하야 屬肺하고 出腋下하야 下肘하야 入寸口하야 上魚際하야 出乎大指之端하니 長三尺五寸이오 兩手合七尺이라. 手少陰之脈은 起於心中出하야 屬心系하고 下絡小腸하고 上肺 出腋下하야 循臂하야 出手小指之端하니 長三尺五寸이오 兩手合七尺이라. 手厥陰之脈은 起於胸中하야 屬心包하고 絡三焦하며 出脇

腋하야 下循臑하야 入肘하야 下出小指次指之端하니 長三尺五寸이오 兩手合長七尺이라 故로曰二丈一尺이라. 楊曰 兩足各有三陽故로 曰六八四丈八尺也라. 按컨대 此脈度數는 七尺五寸으로 中人之形而云이라. 長八尺은 理則難解라. 然이나 足之六陽이 從足指而向上行에 由其紆曲故로 曰八尺也라. 虞曰 足太陽之脈은 起於兩足小指之側하야 上循膝하야 交膕中하야 循背하야 上頭 下入目內眥하니 長八尺이오 兩足上行하야 合一丈六尺이라. 足陽明之脈은 起於足大指次指之端하야 循足脛하야 上夾臍左右各二寸하야 終於額角髮際하니 長八尺이오 兩足合一丈六尺이라. 足少陽之脈은 起於足小指次指之端하야 上循兩膝外廉하야 入季脇하야 上循目外眥하니 長八尺이오 兩足合一丈六尺이라. 故로 曰四丈八尺也라. 楊曰 兩足各有三陰故로 曰六六三丈六尺也라. 按足太陰少陰하면 皆至舌下요 足厥陰至於頂上이니 今言至胸中者는 蓋據其相接之次也라. 虞曰 足太陰之脈은 起於足大指內側하야 循足脛內廉하야 上交出厥陰脈之前하야 上循入腹하야 屬肝絡胃하고 連舌本하니 長七尺五寸이오 兩行合長一丈五尺이라. 足厥陰之脈은 起於足大指聚毛之上하야 循足跗上廉去內踝一寸上踝八寸하야 交出足太陰之後하야 循股하야 入陰毛中하야 循陰器抵小腹하야 俠胃屬肝絡膽하고 循喉嚨하야 入頰頰하야 連目系하야 出腋하니 長六尺五寸이오 兩行合長一丈三尺이라. 足少陰之脈은 起於足小指之下하야 斜趣足心하야 上膕股하야 內貫脊하야 屬腎絡膀胱하고 貫肝入肺하고 循喉嚨하야 俠舌本하니 長六尺五寸이오 合長一丈三尺이라. 故로 云三丈九尺이라. 楊曰 人長七尺五寸而蹻脈從踝至目하야 不得有七尺五寸也이어늘 今經에 言七尺五寸者는 是脚脈上於頭而行焉이니 言至目者는 據其綱維也라. 虞曰 人有陰蹻陽蹻二脈하야 兩足合四脈이라. 陽蹻者는 起於跟中하야 循外踝하야 上行入風池라. 陰蹻者는 亦起於跟中이니 乃是足少陰之別絡也라. 自然骨之後로 上內踝之上하야 直上하야 循陰股하야 入陰하야 循腹하야 上胸하야 裏入缺盆하야 上出人迎之前하야 入頰內廉하야 屬目內眥하고 合太陽脈하니 長七尺五寸이오 兩行合一丈五尺이라. 准此推之하면 至目者와 推尺은 是兩足陰蹻脈也라. 故로 經에 言從足至目하야 長七尺五寸이 合一丈五尺은 是也라. 丁曰 此篇에 云十二經脈長短하고 又言陰蹻從足至目하고 又言督任二脈이로대 何獨不言陽蹻아. 陽蹻도 亦起於跟中하야 循外踝하야 上入風池하니 亦長一丈五尺이라. 言之 則據經丈尺이 有剩이오 不言有此는 闕漏하니 更俟後賢이라. 其脈上에 云八尺者는 其中庸之人으로 以省尺言之면 皆得四尺이니 今尺者는 非黍尺也라. 皆以同身寸之爲尺 大小言之면 皆八尺이라. 楊曰 督脈起於脊膕하야 上於頭하야 下於面하야 至口齒니 縫計此면 不止長四尺五寸이로대 今言四尺五寸者는 當取其上極於風府而言之也라. 手足各十二脈이니 爲二十四脈이오 并督任 兩蹻四部하야 合爲二十八脈으로 以應二十八宿이라. 凡長一十六丈二尺이니 榮衛行注 此數則爲一度也

라. 故로 曰長短之數也라. 虞曰 經에 言督脈起於下極之俞하야 并於脊裏하야 上至風府하야 入屬於腦하니 長四尺五寸이라. 任脈者는 起於中極之下하야 以上毛際하야 循腹하야 上關元하야 至咽喉하니 長四尺五寸이라. 督任計之면 長合九尺也라. 以上十二經이 合二十四脈이니 合長一十三丈八尺이오 兼之督任陰蹻三脈合長二丈四尺이라. 共二十七脈으로 合長一十六丈二尺이니 以法三九之數오 應漏水下以刻이라. 楊氏言二十八脈은 乃陽蹻도 亦係其數推之나 二蹻四行則尺寸有餘也니 楊氏言二十八脈은 誤矣라.

3. 校正圖註難經

三陰三陽經脈은 足長於手而陰短於陽이라. 并蹻與任督積而數之하야 共得一十六丈二尺이라. 兩足蹻脈은 男數其陽而女數其陰也라.

4. 難經經釋

三陽은 <靈>脈度篇作六陽이라. 手三陽之脈은 皆從指末起而終於頭라. 五六合은 兩手言之也라. 手三陰之脈도 亦從指末起而至胸中이라. 足三陽은 從足指起至頭라. 足三陰은 從足指足心起至胸이라. 蹻脈은 屬奇經이라. 按蹻脈컨대 有陰陽之分이오 左右共四脈이니 不知此면 何所指오. 又按 陰蹻爲少陰之別이오 陽蹻爲太陰之別이라. <靈>脈度篇에 論蹻脈起止호대 專指陰蹻言而不及陽蹻하니 則其長短之數는 乃陰蹻之數也라. 故로 帝問 蹻脈有陰陽하니 何脈當其數오하고 岐伯答曰 男子數其陽 女子數其陰이라하니라. 蓋陽蹻與陰蹻는 雖有內外表裏之殊나 其長短은 大約相等也라. (督任脈) 亦屬奇經이라. 督脈在背오 任脈在腹이니 詳<素>骨空論이라.

5. 難經正義

此言十二經及陽蹻督任之脈하야 析之合之하니 皆有度數可紀也라. 手有三陰하니 太陰肺 少陰心 厥陰心包絡이오 足有三陰하니 太陰脾 少陰腎 厥陰肝이라. 手有三陽하니 太陽小腸 陽明大腸 少陽三焦오 足有三陽하니 太陽膀胱 陽明胃 少陽膽으로 爲十二經也라. 經之流注는 手三陽은 皆從手指末起 而終於頭오 手三陰은 亦從手指末起 而終至胸中이라. 足三陽은 從足指起 而至頭오 足三陰은 從足指足心起 而至胸이라. 此는 舉經脈之度數이니 故로皆以手足言也라. 蹻脈은 屬奇經이니 有陰陽之分이라. 左右足各有陽蹻하니 卽從足太陽申脈穴하야 由外上行至風池者 是也라. 左右足各有陰蹻하니 卽從足少陰照海穴하야 由內踝上行至咽喉者 是也라. 但<靈樞>脈度篇에 論蹻脈起止 專指陰蹻言 而不及陽蹻하니 則其長短之數 乃陰校之數也라. 故로 帝問 蹻脈有陰陽하니 何脈當其數오?라하고 岐伯答以男子數其陽 女子數其陰이라하니라. 蓋陽蹻與陰蹻는 雖有內外表裏之殊나 其長短은 則大約相等也라. 督任脈도 亦屬奇經이라. 督脈起於腎中하야 由尻貫脊하야 入腦交顛하야 終於人中하니 統一身之陽이라. 任脈은 起於小腹之內하야 出會陰하야 循臍腹하야 上喉嚨

하야 終於脣下之承漿하니 統一身之陰이라. 此節引《靈樞》脈度篇原文하야 以明脈卽榮氣也라

6. 古本難經闡註

此章은 言脈起長短之數라. 卽一難之二百七十息에 脈行一度이니 共長十六丈二尺爲一周오 一日夜一萬三千五百息에 脈行五十周와 義同이라.

7. 難經懸解

此는 引《靈樞》脈度文이라.

8. 中國醫學匯海

滑柏仁註 此는 《靈樞》十七篇全文이라. 三陰三陽은 《靈樞》皆作六陰六陽이니 義尤明白이라.

9. 難經古義

按十二經脈尺度하면 總計十三丈八尺이오 任督蹻三脈은 總二丈四尺으로 合十六丈二尺이니 卽一難所謂 晝夜五十周身 血氣運行之度也라. 然이나 又視二十七難奇經八脈하면 不拘十二經云云者하야 與此互相反하니 所以不免於後人之疑焉이라. 滑註無明解하니 予因攷之니라. 凡在經絡流行에 本自一元氣하니 雖有陰陽之分하고 多少之差하나 何有隔離阻絶하고 各異其流之理乎아. 且所謂十六丈二尺者는 特舉手足一體之大經脈而言之오 且奇經之中에 任督蹻는 在內經而有定尺하고 其餘陰陽維衝帶 四奇長短之度는 於經亦無所見하니 則知其綱繆大經 而餘流所及 隨省文耳라. 故로 知在尺度 則舉任督蹻以爲定數오 在流行 卽陰陽維衝帶도 亦寓其中焉이라. 滑註蹻脈爲陰蹻나 予謂不然이라. 經에 云男數其陽 女數其陰으로 當數者爲經이오 不可數者爲絡이라하니 是其證也라. 然則蹻脈은 在男女各有陰陽取捨之異可知已라.

10. 難經衷腋

此《靈樞》脈度篇全文이라. 但三陰三陽은 《靈樞》皆作 六陰六陽이니 蓋合左右而言也라. 人兩足蹻脈은 男女之異라. 脈度篇에 黃帝曰 蹻脈有陰陽하니 何脈當其數오하니 岐伯曰 男子數其陽하고 女子數其陰하니 當數者는 爲經이오 不當數者는 爲絡也라하니라. 由此 則男子以陽蹻數之오 女子以陰蹻數之라. 故로 言兩足蹻脈而不言陰陽也라.

【考察】

本 原文은 《靈樞》脈度篇의 文章을 실은 것으로, 十二經脈과 督·任·蹻脈의 길이를 同身寸法에 의하여 밝히고 있다. 手三陽의 脈은 3丈이고, 手三陰의 脈은 2丈1尺이고, 足三陽의 脈은 4丈8尺이고, 足三陰의 脈은 3丈9尺이고, 兩足蹻脈은 1丈5尺이고, 督任脈은 9尺으로, 모두 合하여 16丈2尺이 된다.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奇經八脈中에 陽維·陰維·帶·衝脈의 길이는 言及하지 않은 理由

와, 蹻脈은 모두 4個인데 여기서는 2個만을 計數하였으니 어떤 脈이 이에 해당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를 하나 하나 考察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奇經八脈中에서 陽維·陰維·帶·衝脈의 길이는 어떤 이유로 言及하지 않은 理由에 대하여서는 《校註》에서는 二十八難을 引用하면서 陽維脈은 모든 陽經을 維絡하고 陰維脈은 모든 陰經을 維絡하여 絡脈의 性質을 갖고 衝脈은 足陽明經과 并行하므로 그 길이가 이미 足陽明經에 包含되었으며 帶脈은 季脇에서 일어나 回身一週하여 縱橫하는 脈을 維絡하므로 이 脈들의 길이는 計數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古義》에서는 16丈 2尺은 大經脈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督·任·蹻脈의 길이는 內經에 記載되었으나 陽維·陰維·帶·衝脈의 길이는 內經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길이에 있어서는 督·任·蹻脈이 包含되는 것이요, 流注에 있어서는 陽維·陰維·帶·衝脈도 包含된다고 하였다. 이에 筆者는 《古義》의 뜻에 合致하는 것으로 《靈樞經脈篇》에 “凡都合十六丈二尺 此氣之大經隧也”라는 文章을 들 수 있으니 위의 두가지 說明이 모두 좋은듯 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蹻脈은 모두 4個인데 本 原文에서는 2個의 脈만을 計數하였으니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하는 問題에 대하여 考察하면 우선 諸家의 說은 두 가지로 整理된다. 그 첫번째는 《校註》로 《靈樞脈度篇》의 “黃帝曰 蹻脈有陰陽하니 何脈當其數오 岐伯答曰 男子數其陽하고 女子數其陰하니 當數者爲經이오 其不當數者爲絡也니라.”라는 文章과 楊上善註의 “男子以陽蹻爲經하고 以陰蹻爲絡이오 女子以陰蹻爲經하고 陽蹻爲絡也니라.”라는 文章을 引用하여, 男子는 陽蹻를 計數하고 女子는 陰蹻를 計數한다고 하였고 《圖註》에서는 《靈樞》를 引用하여 “男數其陽而女搜其陰也라”라고 하였고 《古義》에서는 《校註》와 뜻을 같이 하였고 《素問》에서는 《靈樞》를 引用하여 男子는 陽蹻를 세고 女子는 陰蹻를 센다고 하였다. 한편 다른 內容으로는 《本義》에서는 “人兩足蹻脈은 指陰蹻라.”라고 하였고 《集註》에서 虞庶는 本 原文의 從足至目은 陰蹻脈의 流注이므로 陰蹻脈을 가리킨다고 하였고 《經釋》에서는 本 原文의 從足至目은 陰蹻脈의 起止이므로 陰蹻脈을 가리킨다고 하였고 《正義》에서는 《經釋》을 그대로 引用하였다. 이상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歷代註家들의 論難이 많으나 《靈樞》를 根據하면 뜻은 한 가지로 分明하다. 첫번째 의견이 옳은듯 하다.

第2節

【原文】

經脈十二와 絡脈十五⁽¹⁾는 何始何窮也오?

然이라. 經脈者는 行血氣하야 通陰陽하야 以營於身者也라. 其始는 從中焦하야 注

手太陰 陽明하고, 陽明은 注足陽明 太陰하며, 太陰은 注手少陰 太陽하고, 太陽은 注足太陽 少陰하며, 少陰은 注手心主 少陽하고, 少陽은 注足少陽 厥陰하며, 厥陰은 復還注手太陰이라. 別絡十五⁽¹⁾는 皆因其原⁽²⁾하야 如環無端하야 轉相灌溉⁽³⁾하나니 朝⁽⁴⁾於寸口人迎하야 以處百病 而決死生也니라.

【解釋】

12經脈과 15絡脈은 어디서 始作하며 어디서 끝나는가?

답이라. 經脈은 氣血을 行하게 하여 陰陽을 貫通하여 身體에 營養作用을 하는 것이다. 그 始作은 中焦로부터 쫓아서 手太陰과 手陽明으로 注行하고, 手陽明은 足陽明과 足太陰으로 注行하고, 足太陰은 手少陰과 手太陽으로 注行하고, 手太陽은 足太陽과 足少陰으로 注行하고, 足少陰은 手厥陰과 手少陽으로 注行하고, 手少陽은 足少陽과 足厥陰으로 注行하고, 足厥陰은 다시 돌아서 手太陰으로 注行한다. 15別絡은 모두 그 原으로 부터 起因하여 고리처럼 끝없이 돌면서 서로 灌溉하나니, 寸口와 人迎에 朝會하여 百病에 處하여 死生을 決定한다.

【字句解】

(1) 絡脈十五, 別絡十五; 別絡과 絡脈은 같은 것이다. 26難에서는 12經脈에 소속된 絡脈과, 陰蹻脈과 陽蹻脈의 絡脈, 그리고 脾의 大絡을 합하여 15絡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靈樞》經脈篇에서는 가리키는 바가 다르니, 자세한 것은 26難에서 論하겠다.

(2) 原; 12經脈의 流注. 자세한 것은 考察을 참고하시오.

(3) 灌溉; 눈에 물을 낸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12經脈을 서로 交通시키는 모습을 가리킨다.

(4) 朝; 朝會한다는 뜻으로 모든 15絡脈이 모인다는 뜻이다.

【各家註】

1. 難經本義

因者是 隨也라. 原者는 始也라. 朝는 猶朝會之朝也라. 以는 用也라.

因上文經脈之尺度以推言經脈之行度也라. 直行者謂之經이오 旁出者謂之絡이라. 十二經에 有十二絡하고 兼陽絡陰絡 脾之大絡으로 爲十五絡也라.

謝氏曰 始從中焦者는 蓋謂飲食入口하야 藏于胃라가 其精微之化는 走手太陰陽明하고 以次相傳하야 至足厥陰이오 厥陰復還走手太陰也라. 絡脈十五는 皆隨十二經脈之所始하야 轉相灌溉하야 如還之無端하고 朝于寸口人迎하야 以之處百病而決死生也라. 寸口人迎은 古法에 以俠喉兩旁動脈으로 爲人迎이나 至晉王叔和하야 直以左手關前一分으로 爲人迎이오 右手關前一分爲氣口라하니 後世宗之라. 愚謂昔人所以取人迎氣口者는 蓋人迎은 爲足陽明胃經으로 受穀氣而養五臟者也오 氣口는 爲手太陰肺經으로 朝百脈而平權衡者也니라.

2. 難經集註

丁曰 此者는 天地陰陽一歲는 終始於二十四氣하고 日月曉昏은 終始於二十四時하며 人之榮衛는 行經絡二十四條故로 復會於尺口人迎이라. 其言寸口者는 手太陰脈口也니 其穴名은 曰太淵故로 脈會於太淵이라. 其十二經 十五絡이 皆輔三焦而生故로 始從中焦하야 注手太陰陽明하니 所以處百病 決死生也라. 楊氏曰 行手太陰訖即注手陽明이오 行手陽明하야 訖即注足陽明하야 輪轉而行이 餘皆倣此也라. 虞曰 其始從中焦者는 謂直兩乳間이니 名曰膻中穴로 亦名氣海라. 言氣從此而起하야 注太陰肺也오 肺行訖하면 傳之與手陽明也라. 素問曰膻中謂 臣使之官이라하니 謂胃化味爲氣하야 自此上傳於肺也라. 楊曰 經脈十二와 絡脈十五이 凡二十七氣로 以法三九之數하니 天有九星과 地有九州와 人有九竅이 是也라. 其經絡流行이 皆朝會於寸口人迎하니 所以診寸口人迎則 知其經絡之病 死生之候矣라. 虞曰 厥陰은 還注手太陰이라. 如此推尋丈尺則 前後經義相違하니 離聖久遠이라. 難爲糟述이라.

3. 校正圖註難經

直行者謂之經이오 傍行者謂之絡이라. 窮은 卽終也라. 其注始於太陰而終於厥陰하야 終而又復始也라.

4. 難經經釋

榮出於中焦故로 脈從中焦始라. 按컨대 《靈》榮氣篇에 論榮氣行次序如此나 然止論榮氣오 非論脈也라. 經文更爲詳備하니 此則略奉言之하야 以爲脈之終始라. 蓋以榮行脈中하야 榮氣之行 卽脈之行也니 義亦可通이라. 脈所注爲原이라. 《靈》九鍼十二原篇에云 原者는 五臟之所以稟三百六十五節氣味也라하니 蓋謂五臟之氣 皆會於此而別之氣亦因乎此也라. 寸口는 見第一難이라. 人迎卽左手之寸口脈也라. 朝는 如朝觀之朝니 謂會聚於此 復稟氣以出也라. 處는 揆度也니 卽第一難獨取寸口以決死生之義라.

5. 難經正義

上言經脈尺度라. 此又言經脈行度 而推論絡脈하야 隨經脈以運行也라. 經有十二 始從中焦者는 蓋謂飲食入胃하야 其精微之化 注乎太陰陽明하고 以次相傳하야 至足厥陰하고 厥陰復還注手太陰也라. 絡脈十五는 皆隨十二經脈之所始하야 轉相灌溉하야 如環之無端하고 朝會於寸口人迎하야 以處分百病而決死生也라. 古法以結喉兩旁動脈爲人迎이로대 越人이 獨取寸口하야 直以左手關前一分爲人迎이오 右手關前一分爲氣口라하니 後世宗之라. 蓋胃受穀氣而養五臟하고 肺朝百脈而平權衡이니 胃爲脈之根이오 肺爲脈之幹이라. 胃脈大小強弱이 未有不變見於寸口라. 寸口者는 脈之大會로 爲肺之動脈이니 以根幹相通故也라.

6. 古本難經闡註

此節은 卽一難之榮衛行陽二十五度하고 行陰亦二十五度하고 其注始於肺而終於肝
하야 一日夜一周之義라. 其絡脈十五는 不如十二經直行而注臟腑이니 乃各因十二經
之原穴하야 傍行於十二經脈之外하고 流注於諸穴하야 循環不已이니 朝於寸口人迎
之脈하야 以處百病之吉凶也라. 手足二者는 俱貫下이니 如手太陰陽明은 卽手太陰
手陽明也오 足陽明太陰은 卽足陽明足太陰也라. 諸穴之所는 詳六十六難이라.

7. 難經懸解

經脈十二相注之次는 見《靈樞》經脈이오 別絡十五別注之道는 見《靈樞》經別이
라. 絡脈之行은 皆與經脈同原 而別交他經하야 如還無端 轉相灌溉하고 而悉朝於寸
口人迎하야 以處百病 以決死生也라.

8. 中國醫學匯海

楊康侯註 經絡流行이 皆朝會於寸口人迎하니 所以診寸口人迎 則知其經絡之病이오
死生之候矣라.

謝晉孫註 始從中焦者는 蓋謂飲食入口하야 藏于胃라가 其精微之化는 走手太陰陽
明하고 以次相傳하야 至足厥陰이오 厥陰復還走手太陰也라. 絡脈十五는 皆隨十二
經脈之所始하야 轉相灌溉하야 如還之無端하고 朝于寸口人迎하야 以之處百病而決
死生也라. 寸口人迎은 古法에 以俠喉兩旁動脈으로 爲人迎이나 至晉王叔和하야 直
以左手關前一分으로 爲人迎이오 右手關前一分爲氣口라하니 後世宗之라. 愚謂昔人
所以取人迎氣口者는 蓋人迎은 爲足陽明胃經으로 受穀氣而養五臟者也오 氣口는
爲手太陰肺經으로 朝百脈而平權衡者也니라.

徐大春曰 寸口는 見第一難이라. 人迎卽左手之寸口脈也라. 朝는 如朝觀之朝니 謂
會聚於此 復稟氣以出也라. 處는 揆度也니 卽第一難獨取寸口以決死生之義라.

9. 難經衷腋

《難經本義》와 같다.

【考察】

本 原文은 《靈樞經脈篇》의 內容을 아주 簡略하게 論述했다고 할 수있는데, 그
內容은 十二經脈과 15絡脈의 始作과 끝을 論하고, 그 機能을 說明하고 있다. 十二
經脈은 中焦로부터 始作하여 手太陰으로 流注하고, 手太陰으로부터 十二經脈의 順
序를 따라 順行하여 足厥陰에 이르고, 足厥陰에서 다시 돌아서 手太陰으로 流注한
다. 그리고 十二經脈의 機能은 氣血을 行하게 하여 全身을 貫通하면서 營養作用을
하는 것이다. 15絡脈은 經脈으로부터 始作하여 끝이없이 돌면서 十二經脈을 서로
交通시키는 것으로, 人迎과 寸口에 모여서 人體의 모든 疾病을 알려주는 役割을 한
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別絡十五 皆因起原”에서의 原의 意味와
人迎·寸口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原文에서의 “別絡十五 皆因起原”의 原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한 疑問이다. 이에 대한 諸家の 說은 세 가지로 整理되는데 그 첫번째는 《本義》와 《正義》에서는 十二經脈의 始, 《懸解》에서는 經脈과 同原, 《校註》와 《難經》에서는 經脈과 같은 源一이라고 하였으며 모두 中焦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두번째는 《蘭註》에서 原穴이라고 하였는데 理由는 밝히지 못하였다. 세번째는 《經釋》에서는 脈이 注하는 場所 즉 經脈 그 自體라고 하였으니, 五臟의 氣가 經脈에 모이고 別之氣도 經脈으로부터 因한다고 하였고 《今釋》에서는 經脈의 注하는 바의 原이라고 解釋하였고 《研究》에서는 15絡은 十二經脈의 始作과 끝을 貫通하여 交通시키는 支脈이 되므로 經脈이 그 原이 된다고 하였다. 이를 綜合하여 보면 十二經脈을 서로 連結시켜 十二經脈이 如環無端하게 巡行케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原은 十二經脈 그 自體를 가리킨다 하겠다. 즉 세번째의 意見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十二經脈自體의 始는 中焦로써 15絡도 결국 中焦로부터 그 氣運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첫번째의 뜻도 參考할만 하다. 두번째에 대해서는 《靈樞九針十二原論》에 “十二原者는 五臟之所以稟三百六十五節氣味也니 五臟有疾也에 應出十二原이오”라고 하고, “凡此十二原者는 主治五臟六腑之有疾者也라”고 하여 原穴은 五臟六腑의 氣가 出하는 곳으로 病變이 나타나며, 原穴로써 五臟六腑의 疾病을 治療한다고 하였으니, 原을 原穴로 理解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靈樞經脈篇》에 나오는 絡穴이 原이라고 할 수 있으니 例를 들면 《靈樞經脈篇》에 “手少陰之別은 名曰內關이니 去腕二寸으로 出于兩筋之間하여 別走少陽이라”고 한 것이다. 그 밖에 手太陰의 別脈·手少陰의 別脈·手心主의 別脈·手太陽의 別脈·手陽明의 別脈·足太陽의 別脈·足少陽의 別脈·足陽明의 別脈·足太陰의 別脈·足厥陰의 別脈이 모두 絡穴로 부터 出하여 表裏經으로 走한다고 論하고 있다. 그러므로 原은 絡穴이라 하는 것이 옳을것 같다.

다음으로 人迎·寸口에 대하여서는 예로부터 人迎의 位置에 대하여 많은 說이 있었는데 아직도 一貫된 定論이 없다. 《內經》에서는 結喉兩旁의 人迎穴이라고 하였고, 《難經》에서는 獨取寸口를 主張하면서 人迎의 名稱은 있으나 人迎의 位置에 대하여는 言及하지 않았고, 王叔和에 이르러서는 左手關前一分을 人迎이고 右手關前一分을 寸口라고 하였으니 《難經》의 註家들의 說明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諸家の 說을 整理하면 세 가지로 要約된다. 첫째는 《本義》와 《集註》와 《難經》과 《校註》에서는 王叔和때부터 左手關前一分을 人迎으로 여겼고 그 後世 사람들이 그의 說을 좃았다고 言及하였다. 그러나 옛 사람이 寸口와 人迎을 取한것은, 人迎은 足陽明胃經으로 穀氣를 받아서 五臟을 養하는 것이고 氣口는 手太陰肺經으로 百脈이 朝會하는 곳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여, 人迎을

喉兩旁의 動脈으로 보았고 人迎은 足陽明胃經經穴으로써 俠喉兩旁動脈處에 있으니 古代의 診脈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둘째는 《經釋》과 《正義》와 《校釋》과 《今釋》에서는 古法은 結喉兩旁動脈을 人迎이라고 여겼으나 越人이 獨取寸口를 主張하여 左手關前을 人迎으로 보고 右手關前을 氣口라고 여기니 後人이 따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세째는 《研究》에서 獨取寸口를 하여 五臟六腑의 死生吉凶을 決定한다고 一難에서 論하였으므로, 이 곳에서 왜 人迎을 이야기했는지 疑心스럽다고 하였고, 《難經俗解》라는 冊에 “人迎”二字는 잘못하여 加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道理에 맞는것 같다고 하였다. 이들을 比較·考察하여 보면 모두가 妥當性이 있는듯 하다. 그러나 分명한 것은 本 原文을 《內經》의 觀點에서 보면 人迎은 結喉兩旁動脈處이고, 王叔和《脈經》以後의 觀點에서 보면 左手關前寸部이다. 《難經》에서의 觀點은 《難經》에 대한 全面的인 研究를 하고 나서 論해야겠지만, 手太陰肺脈의 動脈인 寸口를 取하여 五臟六腑의 死生吉凶을 決定한다는 一難의 主張을 尊重하면 左手關前寸部를 가리킨다고 보는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第3節

【原文】

經云 明知終始면 陰陽定矣라하니 何謂也오?

然이라. 終始⁽¹⁾者는 脈⁽²⁾之紀⁽³⁾也라. 寸口人迎에 陰陽之氣이 通於朝使⁽⁴⁾하야 如環無端하니 故曰始也라. 終者는 三陰三陽之脈絶이니 絶則死오 死各有形 故曰終也니라.

【解釋】

經에 이르기를 終과 始를 分明하게 알면 陰陽이 정해진다고 하니 무엇을 일컫는 것인가? 答이라. 終始는 脈(法)의 紀綱이다. 寸口와 人迎에, 陰陽의 氣가 通하여 朝會하였다가 부림을 받아 出하는 것이 고리처럼 끝이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始라고 하였다. 終은 三陰三陽의 脈(氣)이 끊어진 것이니, 끊어지면 죽는 것이요, 죽음에는 各各의 形態가 있으므로 終이라고 말한 것이다.

【字句解】

- (1) 終始: 始는 脈氣가 開始하는 것, 終은 脈氣가 竭絶하는 것을 가리킨다.
- (2) 脈: 診脈法을 가리킨다.
- (3) 紀: 법 기. 紀綱, 綱領의 뜻이다.
- (4) 朝使: 朝는 朝會의 뜻으로 모이는 것을 가리킨다. 使는 부린다는 뜻으로 使臣이 部림을 받아 出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朝使는 臣下가 朝會하였다가 部림을 받아 出하는 것으로, 氣血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을 말한다.

【各家註】

1. 難經本義

謝氏曰 《靈樞經》第九篇에 曰 凡刺之道는 畢于終始니 明知終始면 五臟爲紀오 陰陽定矣라하고 又曰 不病者는 脈口人迎應四時也오 少氣者는 脈口人迎俱少 而不稱尺寸也라하니라. 此一節은 因上文寸口人迎 處百病 決死生而推言之니 謂欲曉知終始하야 陰陽爲能定之라. 蓋以陽經取決於人迎하고 陰經取決於氣口也니라. 朝使者朝는 謂氣血如水潮 應時而灌溉오 使는 謂陰陽相爲用也니라. 始는 如生物之始오 終은 如生物之窮이니 欲知生死면 脈以候之라. 陰陽之氣通於朝使하야 如還無端이면 則不病이오 一或不相朝使則病矣라. 況三陰三陽之脈絶乎아. 絶必死矣리니 其死之形狀은 具如下篇이니 尤宜參看이라.

2. 難經集註

楊曰 經脈流行이 應於天地度數하야 周而復始故로 曰如還無端也라. 楊曰 陰陽氣絶이면 其候亦見於寸口人迎이오 見則死矣니 其死各有形診故로 曰終也라. 丁曰 所言三陰三陽之脈絶하면 絶則死하고 死各有形이라하니 其義本經自解는 在二十四難中이라.

3. 校正圖註難經

陰者는 臟也오 陽者는 腑也라. 三陰三陽者는 卽十二經也라. 十二經脈變이 見於寸口人迎하니 周流不息而謂之始오 絶塞不通이 各隨其經하야 死各有形而謂之終이라. 有形注二十四難이라.

4. 難經經釋

見《靈》終始篇이라. 終始篇云 終始者 經脈爲紀라하니라. 朝는 見上이라. 使는 言相爲用也라. 寸口爲陰이오 人迎爲陽이라. 死形見下二十四難이라. 按컨대 《靈》終始篇云 凡刺之道는 畢於終始니 明知終始면 五臟爲紀오 陰陽定矣라하고 下文에 云陽受氣於四末하고 陰受氣於五臟故로 瀉者迎之오 補者隨之라하니라. 此終始는 蓋指十二經之所起止하야 以迎隨之而補瀉焉이오 非謂氣行爲始 脈絶爲終也라. 其終始篇篇末에 亦載十二經脈絶病形하야 與《素問》診要經終論同이니 此又一義나 并非終始之終也라. 豈可因篇末有十二經 經終病形하야 誤以終始之終하야 爲卽此終耶아. 何其不深思也아. 按此節컨대 人迎은 非指兩經所言 結喉兩旁之人迎脈也라. 第一難 單舉寸口이니 則兩手脈俱在其中이오 此節에 兼舉人迎이니 則右爲寸口 左爲人迎正이라. 脈經脈決之所本也라.

5. 難經正義

經은 《靈樞》終始篇也라. 此節承上文決死生之義 而問脈之終始하야 以起下節脈絶之形也라. 終始篇에 曰凡刺之道는 畢於終始하니 明知終始면 五臟爲紀오 陰陽定矣라하니 是謂欲知終始 於陰陽 爲能定之라. 蓋以陽經取決於人迎이오 陰經取決於氣

口也라. 朝는 朝宗也라. 使는 使道也니 道即經隧之謂라. 始는 如生物之始오 終은 如生病之窮이니 欲明生死인댄 脈以候之라. 陰陽之氣는 循環不已하니 人之生機 皆始於此故로 曰始也라. 三陰三陽之脈絶이면 人之生氣 皆終於此故로 曰終也라. 其三陰三陽脈絶之形狀은 具如下章이라.

6. 古本難經闡註

此一節은 承上決死生之義하고 而問脈之終始하야 以起下章脈絶之形이라. 蓋常言終始者는 不過謂脈之紀也로대 今言死生之終始者는 謂左右人迎寸口脈陰陽之氣循環不已이니 人之生機皆始於此故로曰始也오 三陰三陽之脈絶 人之生機皆終於此故로曰終也라. 但三陰三陽脈絶은 形各不同이니 義在下章이라.

7. 難經懸解

《靈樞》終始에 凡刺之道는 畢於終始니 明知終始댄 五臟爲紀오 陰陽定矣라하니라. 朝는 朝宗也오 使는 使道也라. 三陰三陽之脈絶則死오 死各有形故로曰 終이니 是謂十二經終으로 詳見《靈樞》終始라.

8. 中國醫學匯海

謝氏曰 《靈樞經》第九篇에 曰 凡刺之道는 畢于終始니 明知終始댄 五臟爲紀오 陰陽定矣라하고 又曰 不病者는 脈口人迎應四時也오 少氣者는 脈口人迎俱少 而不稱尺寸也라하니라. 此一節은 因上文寸口人迎 處百病 決死生而推言之니 謂欲曉知終始인댄 陰陽爲能定之라. 蓋以陽經取決於人迎하고 陰經取決於氣口也니라. 朝使者 朝는 謂氣血如水潮 應時而灌溉오 使는 謂陰陽相爲用也니라. 始는 如生物之始오 終은 如生物之窮이니 欲知生死댄 脈以候之라. 陰陽之氣通於朝使하야 如還無端이면 則不病이오 一或不相朝使則病矣라. 況三陰三陽之脈絶乎야. 絶必死矣리니 其死之形狀은 具如下篇이니 尤宜參看이라. 張山雷《箋正》曰 此節之所謂終始는 在《鍼經》에 以鍼道言이라. 《甲乙經》兩卷의 此篇之目에 明是鍼道終始하니 則專指經絡之起止로 其義極顯이라. 《難經》是節에 既謂經絡者 脈之紀也라하니 則謂經絡起止는 卽是脈道紀綱으로 未嘗不言明且淸이로대 何得又以如環無端謂之始며 六經脈絶謂之終이오? 須知既曰 如環無端이면 則且無所謂始오 而經絡脈絶이면 是其人考終이니 尙何所用其鍼道리오? 無端은 於經文中에 截取兩句이니 解得如此면 不通이라. 雖曰讀古人書라도 可以斷章取義면 亦不應背謬이 若是라. 此必淺者爲之 無可諱言이오 洄溪譏之 最是確論이라. 蓋周秦舊籍에 屬雜改竄이 固所時幽하니 必不能爲古書廻護者 亦不可誤認 此是越人之書 而遽以歸咎於越人이라. 滑伯仁 不知此理하야 所引謝氏舊說하야 敷衍本文하야 而以囁嚅出之陋矣라. 而陽經取決於人迎과 陰經取決於寸口兩句는 尤其信口糊說이니 一竅不通이라

9. 難經古義

此所引經文二句는 出《靈樞》라. 終始字는 在《難經》寓死生意耳라.

10. 難經素腋

《難經本義》와 같다.

【考察】

本 原文은 第二節 原文中에 “寸口人迎 處百病 決死生”을 이어서 推論한 것으로 本 原文中에 “死各有形”이라고 하여 二十四難에 나오는 十二經의 絶形을 誘發시키고 있다. 始는 經脈의 氣가 끊임없이 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終은 經脈의 氣가 끊어져서 疾病과 죽음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모든 徵候가 人迎과 寸口에 보인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問題가 될만한 文章은 終始에 대한 것이다. 終始의 意味에 대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考察하였다.

이를 引用한 文獻은 《靈樞終始篇》인데 이에 관한 解釋은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靈樞終始篇》 原文에 관한 註解書에서는 終始를 古篇名으로 보기도 하고, 經脈의 起止로 보기도 하며, 經脈의 氣가 如環無端하여 終而復始하는 것으로 說明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難經》 本 原文에서 終始篇을 引用하면서 죽음과 健康의 뜻으로 풀이 하였다. 그러면 《難經》의 註家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本義》와 《古義》와 《圖註》에서는 《靈樞終始篇》의 “不病者는 脈口人迎應四時하고 少氣者는 脈口人迎俱少 而不稱尺寸也라”는 文章을 引用하여, 陰陽의 氣가 通於朝使하여 如環無端이면 不病이고, 朝使하지 못하면 病이며, 三陰三陽의 氣가 끊기면 죽는다고 하였고 始는 生物의 始와 같고, 終은 生物의 窮과 같다고 하였으며 十二經氣가 注流不息하는 것이 始이고, 絶塞不通하여 死形이 나타나는 것이 終이라고 하였다. 둘째 《正義》와 《闡註》와 《研究》에서는 사람의 生死를 脈으로 알 수있으니, 脈上에 終始가 나타난다고 하여 《本義》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다고 생각하였고 正常的인 脈上을 始라고 하고 非正常的인 脈上은 終이라고 하였다. 셋째 《經釋》와 《匯海》에서는 《靈樞終始篇》의 “凡刺之道는 畢於終始니 明知終始면 五臟爲紀야 陰陽定矣라”와 “陽受氣於四末하고 陰受氣於五臟하니 瀉者迎之오 補者隨之라”와 “終始者는 經脈爲紀니라”는 文章을 引用하여 終始는 十二經의 起止를 가리킨다고 하였으니 卽 이것은 經脈의 起止를 알아서 迎隨補瀉法을 使用할 것을 說明한 것이요, 經絶을 終으로 말함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鍼道終始는 오로지 經絡의 起止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였다. 以上을 살펴보면 《靈樞終始篇》에 ‘終始’二字가 네번 나오는데 “凡刺之道는 畢於終始니 明知終始면 五臟爲紀야 陰陽定矣라. 陰者主臟하고 陽者主腑하니 陽受氣於四末하고 陰受氣於五臟이라. 故로 瀉

者迎之하고 補者隨之하니 知迎知隨하면 氣可令和니라. 和氣之方은 必通陰陽이니 五臟爲陰이오 六腑爲陽이라.”의 文章에서 같은 뜻으로 두번 나오고, “謹奉天道하야 請言終始호리다. 終始者는 經脈爲紀이니 持其脈口人迎하야 以知陰陽有餘不足 平與不平이면 天道畢矣니라. 所謂平人者는 不病이니 不病者는 脈口人迎應四時也 오 …… 少氣者는 脈口人迎俱少而不稱尺寸也 오 …… 人迎一盛하면 病在足少陽하고 …… 人迎二盛하면 病在足太陽하고 …… 脈口一盛하면 病在足厥陰하고 …… 脈口二盛하면 病在足少陰하고 …… 人迎與太陰脈口俱盛四倍以上은 名曰關格이라.”의 文章에서 처음과 다른 뜻으로 두번 나온다. 먼저 文章에서의 終始의 뜻은 經脈의 起止를 가리키는 것으로 徐靈胎가 主張하는 것과 같다. 이곳에서 終始를 古代篇名인 終始篇으로 解釋하는 것도 있으나, 그 終始篇에도 經脈의 起止가 記載되었다고 한다. 나중 文章에서의 終始는 如環無端하여 終而復始한다는 뜻으로 解釋할 수도 있고 生死나 生死의 脈으로 理解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難經》 本 原文에서는 어떻게 解釋해야 하는가? 本 原文에서의 “經云 明知終始면 陰陽定矣라하니 何謂也오?”의 文章은 첫번째 文章에 있다. 그렇다면 첫번째 文章에서 그 解答을 찾아야 할 것이므로, 이 質問에 대한 對答은 세번째의 主張 처럼 經脈의 起止로 解釋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難經》의 本來 意圖대로 본다면, 本 原文은 위의 原文과 아래의 二十四難을 연결시키는 文章이므로 生死의 뜻이나 生死의 脈의 뜻으로 보아야겠다. 그리고 이 뜻도 終始篇의 두번째 文段에 나오므로 전혀 根據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의 두가지 意見도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第2章 二十四難

【原文】

二十四難에 曰手足三陰三陽氣已絶하면 何以爲候오 可知其吉凶不잇가?

然이라. 足少陰氣絶하면 卽骨枯라. 少陰者는 冬脈也니 伏行而溫⁽¹⁾於骨髓 故로骨髓不溫⁽¹⁾ 卽肉不着骨하고 骨肉不相親 卽肉濡⁽²⁾而却⁽¹⁾이오 肉濡⁽²⁾而却 故로齒長而枯⁽³⁾하고 髮無潤澤하니 無潤澤者는 骨先死라. 戊日篤⁽²⁾하고 己日死니라.

【解釋】

24難에 이르기를 手足三陰三陽의 氣가 이미 끊어졌으면 어떠한 症候가 되는가? 그 吉凶을 알 수 있는가? 答이라. 足少陰의 氣가 끊어지면 骨이 마르게 된다. 少陰은 冬脈이니 깊숙히 行하여 骨髓를 溫養한다. 그러므로 骨髓가 溫養받지 못하면 肉이 骨에 附着되지 못하고, 肉이 骨에 附着되지 못하면 肉이 軟弱하게 되

어 물러나는 것이요, 肉이 軟弱하여 물러가게 되므로 이빨이 길어지고 마르고 머리카락에 潤澤함이 없게 되니, 潤澤함이 없는 것은 뼈이 먼저 衰한 것이다. 戊일에 危重하게 되고 己일에 죽는다.

【校勘】

- 〈1〉 溫: 《靈樞》 經脈篇에는 濡로 되어 있다.
- 〈2〉 濡: 《靈樞》 經脈篇에는 軟으로 되어 있다.
- 〈3〉 枯: 《靈樞》 經脈篇과 《素問》 診要經終論에는 垢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却: 물러날 각.
- (2) 篤: 위중(危重)할 독.

【各家註】

1. 難經本義

此下六節은 與《靈樞》第十篇으로 皆大同小異라. 濡는 讀爲軟이라. 腎은 其華在髮하고 其充在骨하니 腎絶則不能充於骨 榮於髮이라. 肉濡而却是 謂骨肉不相着而肉濡縮也라. 戊己土也오 土勝水니 故로 以其所勝之日篤而死矣라.

2. 難經集註

足少陰之經은 腎脈也로 屬水 王冬이니 內榮於骨髓오 外華於髮이라. 其氣絶則齒本長하고 骨枯하고 髮無潤澤하니 故로 戊日篤而已日死也라. 此는 足少陰絶之形也라. 楊曰 足少陰은 腎脈也라. 腎主冬 故로 云冬脈也라. 腎主內榮骨髓 故로 云伏行而溫於骨髓也라. 腎氣既絶 則不能榮骨髓 故로 肉濡而却이라. 却是 結縮也니 謂齒齦之肉 結縮 故로 齒漸長 而枯燥也니 謂齒乾燥 色不澤也라. 腎爲津液之主이 어늘 今無津液 故로 使髮不潤焉이라. 戊己土也오 腎水也니 土能剋水 故로 云戊日篤하고 己日死也라. 虞曰 陰陽有少壯하니 故로 有三陰三陽以通氣血以養人身이라. 是故로 三陰乃有離合하니 太陰爲開오 厥陰爲闔이오 少陰爲樞라. 開者는 司動靜之基오 闔者는 執禁固之權이오 樞者는 主動轉之微라. 三經不得相失이 어늘 今足少陰腎脈已絶하니 是故로 一經相失하야 少陰不得爲樞하야 動轉之微不主矣라. 故로 曰死也라. 診要經終論에 曰少陰終者는 面黑齒長而垢하고 腹脹閉하고 上下不通而終矣라하니 此之謂也니라.

3. 校正圖註難經

腎也者는 其華在髮하고 其充在骨이라. 少陰屬腎이니 其脈絶 則不能榮髮 充骨矣라. 却者 不能合也라. 齒者 骨之餘也라. 腎屬水오 戊己土이니 土勝水 故로 篤于戊而死于己也라.

4. 難經經釋

候以證之驗也라. 以下皆言其候也라. 《素》六節藏象論에 云腎其充在骨이라. 腎脈應冬이니 其氣斂藏於內라. 濡는 滯也라. 經作軟而却이니 却是 退縮也라. 枯는 經作垢라. 齒肉却則齲上宣 故로齒長이라. 枯는 不澤也라. 齒者 骨之餘 故로以此驗之라.

5. 難經正義

此는 承上文手足三陰三陽氣絶必有其候하야 引《靈樞》經脈篇하고 錯雜言之也라. 足少陰은 腎脈也라. 腎主冬 故로 云冬脈也라. 腎主內榮骨髓 故로 云伏行而溫於骨髓也라. 濡는 軟也라. 却是 退縮也라. 腎氣已絶하야 骨肉不相親 則齒齲之肉結縮 故로齒漸長而枯燥也라. 腎主藏精而化血이오 髮者血之餘이니 腎之精氣絶 故로髮不潤澤也라. 戊己土也오 腎水也니 土剋水 故로云戊日篤 己日死也라.

6. 古本難經闡註

此章은 言脈絶之義라. 足少陰은 屬北方腎으로 腎主冬氣當斂藏 故로脈當著骨伏行이니 伏行者는 如潛伏而行也라. 所以診腎脈은 按之至骨이라. 腎者는 水也오 戊己土也니 土剋水 故로死也라.

7. 難經懸解

腎主骨이오 其榮髮이라. 戊篤己死는 土勝水也라.

8. 中國醫學匯海

楊玄操註 足少陰은 腎脈也라. 腎主冬 故로云冬脈也라. 腎主內榮骨髓 故로 云伏行而溫於骨髓也라. 腎氣既絶 則不能榮骨髓 故로肉濡而却이라. 却是 結縮也니 謂齒齲之肉結縮 故로齒漸長而枯燥也니 謂齒乾燥色不澤也라. 腎爲津液之主이어늘 今無津液 故로使髮不潤焉이라. 戊己土也오 腎水也니 土能剋水 故로云戊日篤己日死也라.

9. 難經衷腋

《難經本義》와 같다.

【原文】

足太陰氣絶하면 則脈不營其口唇이라. 口唇者는 肌肉之本也니 脈不營하면 則肌肉不滑澤하고 肌肉不滑澤 則肉滿⁽¹⁾⁽¹⁾이오 肉滿⁽¹⁾⁽¹⁾ 則唇反이니 唇反則肉先死라. 甲日篤하고 乙日死니라.

【解釋】

足太陰의 氣가 끊어지면, 足太陰脈이 그 입과 입술을 營養하지 못한다. 입과 입술은 肌肉의 根本이니 足太陰脈이 營養하지 못하면 肌肉이 滑澤하지 못하고, 肌肉이 滑澤하지 못하면 人中部分이 가득하게 되고, 人中部分이 가득하게 되면 입술이 뒤집어지니, 입술이 뒤집어진 것은 肌肉이 먼저 衰한 것이다. 甲日에 危重하고 乙日에 죽는다.

【校勘】

〈1〉肉滿; 《靈樞》經脈篇과 《難經懸解》에 人中滿이라고 되어 있다.

【字句解】

(1) 肉滿; 卽 人中滿을 가리킨다. 人中穴은 水溝穴으로써 水溝穴部分이 가득하게 되어 口脣을 당기므로 口脣이 뒤집어지는 것이다.

【各家註】

1. 難經本義

脾는 其華在脣四白하고 其充在肌하니 脾絶則肉滿脣反이라. 肉滿은 謂肌肉不滑澤而緊急慎噴也라.

2. 難經集註

丁曰 足太陰經者는 脾之脈也니 屬土 王季夏라. 其氣는 內養肌肉하고 外華衛於口脣이니 其氣絶則脣反肉滿 故로 甲日篤而乙日死也라. 此是足太陰絶之形也라. 揚曰 足太陰은 脾脈也라. 脾主肌肉이로대 其氣既絶 故로 肌肉蠹澁而脣反이라. 甲乙木也오 脾土也니 木能剋土 故로 云甲日篤하고 乙日死也라. 虞曰 口脣은 肉之所終이니 亦曰脾之華라. 今脣反色靑은 木賊土也니 故로 曰死矣라. 陰陽之離合에 以太陰爲開로 司動靜之基이니 今脈已絶 則動靜之基 乃失司存 故로 曰死也라. 《素問》曰 太陰終者는 腹滿閉하고 不得息하고 善嘔하니 嘔則逆이오 逆則面赤也라하니라.

3. 校正圖註難經

太陰은 脾經也라. 脾屬土로 其華在脣하고 其充在肌하고 其竅在口하니 脾和則肌肉活澤이오 脾脈不榮 則肉無所養 而肉滿脣反見焉이라. 甲乙木日也니 木勝土 故로 甲篤而乙死也라.

4. 難經經釋

口脣은 經作肌肉이라. 六節藏象論에 云脾其華在脣四白 其充在肌라하니라. 滿은 浮腫이라. 肉腫則脣亦腫而反出於外也라. 按컨대 經脈篇에 云脈不榮則肌肉軟이오 肌肉軟則舌萎 人中滿이며 人中滿則脣反이라하니 極爲明白이로대 此云肉則難解矣라.

5. 難經正義

足太陰은 脾脈也라. 脾主肌肉하고 脾開竅於口하고 其華在脣四白하니 脈不榮 則太陰之氣絶 故로 肌肉不滑澤하고 肉滿 脣反也라. 甲乙木也오 脾土也니 木剋土 故로 云甲日篤 乙日死也라.

6. 古本難經闡註

足太陰은 脾也라. 脾主肌肉이니 所以診脾脈與肌肉相等이라. 脾屬土오 甲乙屬木이니 木剋土 故로 死也라.

7. 難經懸解

脾主肉이오 其榮脣이라. 甲篤乙死는 木勝土也라. 人中滿은 舊訛作肉滿을 依《靈樞》改라.

8. 中國醫學匯海

滑柏仁註 脾는 其華在脣四白하고 其充在肌하니 脾絶則肉滿脣反이라. 肉滿은 謂肌肉不滑澤 而緊急慎噴也라.

9. 難經裹腋

脾는 其華在脣하고 其充在肌하니 脾絶則脾脈不榮肌肉 故로不澤이오 不澤 則肉緊急蠱澁하야 脣向外而反矣니라.

【原文】

足厥陰氣絶하면 卽筋縮引卵與舌卷⁽¹⁾이라. 厥陰者는 肝脈也오 肝者는 筋之合也라. 筋者는 聚於陰器而絡於舌本 故로厥不營 則筋縮急이오 筋縮急卽引卵與舌 故로舌卷卵縮이니 此筋先死라. 庚日篤하고 辛日死니라.

【解釋】

足厥陰氣가 끊어지면 筋이 收縮되어 辜丸과 혀를 당기게 된다. 厥陰은 肝脈이요 肝은 筋의 集合이다. 筋은 陰器에 모였다가 혀의 뿌리에 連絡한다. 그러므로 肝脈이 營養하지 못하면 筋이 收縮하여 緊急하게 되는 것이요, 筋이 收縮하여 緊急하게 되면 辜丸과 혀를 당기므로 혀가 말리고 辜丸이 收縮하는 것이니 이것은 筋이 먼저 衰한 것이다. 庚日에 危重하고 辛日에 죽는다.

【校勘】

〈1〉 卷: 《靈樞》經脈篇에는 없다.

【各家註】

1. 難經本義

肝者는 筋之合이니 其華在爪오 其充在筋이라. 筋者는 聚於陰器而絡於舌本이니 肝絶則筋縮引卵與舌也라. 王充論衡云 甲乙病者는 生死之期니 常之庚申이라.

2. 難經集註

丁曰 足厥陰經者는 肝之脈也니 屬木 王春이라. 氣內養於筋하고 外則上係舌本하고 下環於陰器하니 其氣絶 則舌券卵縮 故로庚日篤而辛日死也라. 此足厥陰絶之形也라. 揚曰 足厥陰은 肝脈也라. 肝主筋이니 其氣既絶 故로筋縮急而舌券卵縮이라. 庚辛金也오 肝木也니 金能剋木 故로云庚日篤而辛日死也라.

3. 校正圖註難經

厥陰은 肝經也라. 肝屬木으로 其華爪하고 其充筋니이니 肝和則筋緩이오 肝脈不榮 則筋無所養而急縮見焉이라. 庚辛은 金日也니 金勝木而不木金 故로庚篤辛死也라.

4. 難經經釋

(卽은) 一作則이라. 引은 牽引也라. 經脈篇에 云厥陰之脈은 循陰器라하고 又云循喉嚨之後라하고 又云環脣內라하니라. 六節藏象論에 云肝其華在爪 其充在筋이라하니라. 《素問》厥論則陰者는 宗筋之所聚라하니라. 經文에 有金勝木也四字라.

5. 難經正義

足厥陰은 肝脈也라. 其華在爪하고 其充在筋하고 其脈循陰而絡於舌本하니 脈不榮則厥陰之氣絶 故로筋急舌卷而卵縮也라. 庚辛金也오 肝木也니 金剋木 故로云庚日篤하고 辛日死也니라.

6. 古本難經闡註

足厥陰은 肝也라. 肝應乎筋이니 所以診肝脈與筋으로 平이라. 肝屬木이오 庚辛屬金이니 木受剋 故로死也라.

7. 難經懸解

肝主筋으로 聚於陰器而終於舌本이라. 庚篤辛死는 金勝木也라.

8. 中國醫學匯海

張天成註 厥陰은 肝經으로 屬木이라. 其華爪하고 其充筋이니 肝和則筋柔舌緩이오 肝脈不榮則筋無所養而急縮見焉이라. 庚辛金日也니 金勝木 故로庚篤而辛死也라.

9. 難經衷腋

《難經本義》와 같다.

【原文】

手太陰氣絶하면 卽皮毛焦⁽¹⁾라. 太陰者는 肺也니 行氣溫於皮毛者也라. 氣弗營 則皮毛焦⁽¹⁾이니 皮毛焦⁽¹⁾ 則津液去라. 津液去 卽皮節傷오 皮節傷 則皮枯毛折이니 毛折者 則毛先死라. 丙日篤하고 丁日死니라.

【解釋】

手太陰氣가 끊어지면 皮膚와 털이 마른다. 太陰은 肺이니 氣를 行하여 皮膚와 털을 따뜻하게 한다. 氣가 營養하지 못하면 皮膚와 털이 마르니, 皮膚와 털이 마르는 것은 津液이 사라진 것이다. 津液이 사라지면 皮膚마디가 傷하고, 皮膚마디가 傷하면 皮膚가 마르고 털이 꺾이니, 털이 꺾이는 것은 털이 먼저 衰한 것이다. 丙日에 危重하고 丁日에 죽는다.

【字句解】

(1) 焦:마를 초(乾也).

【各家註】

1. 難經本義

肺者는 氣之本으로 其華在毛오 其充在皮이니 肺絶則皮毛焦而津液去라. 皮節傷은 以諸液皆會於節也일새라.

2. 難經集註

丁曰 手太陰經者는 肺之脈也니 屬金 王秋라. 其氣內主於氣하고 外榮於皮毛하니 其氣絶 則津液去하야 皮毛焦 故로丙日篤而丁日死也라. 揚曰 手太陰은 肺脈也라. 肺主行氣 故로曰溫皮毛라. 丙丁火也오 肺金也니 火能剋金 故로云丙日篤하고 丁日死也라. 虞曰 肺行衛氣以養皮毛이어늘 今皮毛焦는 則知火來燦金이라. 皮枯毛折은 脈絶이라. 其爲離合은 與足太陰으로 同法也라.

3. 校正圖註難經

太陰은 金肺也라. 肺屬金으로 其華在毛하고 其充在皮이니 肺氣和 則皮潤而毛盛이라. 津液賴肺氣運用而滋皮節毛者也라. 肺氣不榮則皮毛無所養矣라. 丙丁은 火日也니 火勝金而金不勝火 故篤於丙而死於丁也라.

4. 難經經釋

一作則이라. 六節藏象論云肺其華在皮 其充在毛라하니라. 皮枯之皮는 經文作爪라. 折은 萎也라. 經文에 有火勝金也四字라.

5. 難經正義

手太陰은 肺脈也라. 其華在毛하고 其充在皮하니 脈不榮 則皮毛焦라. 肺主氣하고 氣薰膚澤毛하니 太陰氣絶 故로津液去 則皮枯毛折而節死也라. 丙丁은 火也오 肺는 金也니 火剋金 故로云丙日篤하고 丁日死也라.

6. 古本難經闡註

手太陰은 肺也라. 肺主皮毛이니 所以診肺脈與皮毛로 相得이라. 肺屬金이오 丙丁 屬火이니 金受剋 故로死也라.

7. 難經懸解

肺主皮하고 其榮毛라. 丙篤丁死는 火勝金也라.

8. 中國醫學匯海

張天成註 太陰은 金肺也라. 肺屬金으로 其華在毛하고 其充在皮니 肺氣和 則皮潤而毛盛이라. 津液者賴肺氣運用而資皮節毛者也라. 肺氣弗榮則皮毛無所養矣라. 丙丁은 火日也니 火勝金 故로篤於丙하고 死於丁也라.

9. 難經衷腋

肺者는 氣之本으로 其華在毛오 其充在皮이니 肺絶則皮毛焦而津液去라. 皮節傷은 皮枯毛絶矣라.

【原文】

手少陰氣絶하면 則脈⁽¹⁾不通⁽¹⁾이오 脈⁽¹⁾不通則血不流이며 血不流 則色⁽²⁾澤⁽³⁾去 故面黑如⁽⁴⁾此血先死라. 壬日篤하고 癸日死니라.

【解釋】

手少陰氣가 끊어지면 血脈이 通하지 않게 되고, 血脈이 通하지 않으면 血이 흐르지 않으며, 血이 흐르지 않으면 顏色과 光澤이 사라지게 되므로 얼굴이 검게되어 鰲와 같이 되니, 이것은 血이 먼저 衰한 것이다. 壬日에 危重하고 癸日에 죽는다.

【校勘】

〈1〉脈不通; 脈不通뒤에 《靈樞》經脈篇과 《難經正義》에는 ‘少陰者 心脈也 心者 脈之合也’의 12字가 더 있다.

【字句解】

- (1) 脈: 여기서는 血脈을 뜻한다.
- (2) 色: 낫 색(顏氣也).
- (3) 澤: 윤택할 택(光潤也).
- (4) 鰲: 검은 리. 빛이 검음 또는 검은데 누런 빛을 띤.

【各家註】

1. 難經本義

心之合은 脈也오 其榮色也오 其華在面하고 其充在血脈이니 心絶則脈不通하고 血不流하여 色澤去也라.

2. 難經集註

丁曰 手少陰經者는 眞心脈也니 屬君火로 王夏오 主於榮 通於脈也니라. 其經非不言手厥陰心包絡爲主相火이니 相行君命하여 主通榮氣이어늘 今眞心氣絶 則榮氣不行이오 榮氣不行 則血不流行이니 是以色澤去 故로面黑如鰲 壬日篤而癸日死라. 此者는 是病이니 非老備也라. 梨字는 當作此鰲字라. 楊曰 經에 云手三陰이어늘 今此有釋太陰少陰 而心主一經不言之는 何也오? 然이라. 心主者는 心包絡之脈也오 少陰者는 心脈也니 二經同候於心 故로言少陰絶 則心主亦絶이니 其診既同 故로不別解也라. 本經에 云面黑如漆柴로대 此云如梨라하니 漆柴者는 恒山苗也니 其草色이 黃黑無潤澤 故로以爲喩라. 梨者는 卽人之所食之果也니 亦取其黃黑焉이라. 言人卽無血 則色黃黑이 似此二物無光澤也라. 壬癸水也오 心火也니 水剋火 故로云 壬日篤癸日死也라. 虞曰 心主血이니 血乃爲榮으로 榮華人身 故로有光澤之色이어늘 今脈已絶하여 血乃不行 故로人色夭하고 面黑如梨하니 是知水來賊火라. 離合은 與足少陰同이라.

3. 校正圖註難經

少陰은 心經也라. 心屬火로 其華在面하고 其光在血이니 心氣和 則華見而血充이오 絶則血無所養而面黑如鰲矣라. 壬癸水日也니 水勝火而火不能勝水 故로篤於壬而死於癸也라.

4. 難經經釋

六節藏象論에 心其華在面하고 其充在血脈이라하니라. 鰲는 黑黃色也라. 經文에 有水勝火也四字라.

5. 難經正義

手少陰은 心脈也라. 心主血脈하야 其榮色也오 其華在面이니 心氣絶 則脈不通하야 血不流 而色澤去矣오 面黑如鰲니라. 鰲는 黑黃色 而無潤澤也라. 言心血不能榮於面 則黃黑而無光華也라. 壬癸水也오 心火也니 水剋火 故로云壬日篤 癸日死也라. 按컨대 手三陰이어늘 今釋太陰少陰 而獨遺手厥陰者는 何也오? 蓋包絡與心同候이니 言心氣絶 則包絡之氣亦絶하야 其診既同하니 不必別解니라. 故로《靈樞》經脈篇 亦無手厥陰之候也라.

6. 古本難經闡註

手少陰은 心也라. 心在上而主血이니 所以診心脈與血脈으로 相得이라. 心屬火오 壬癸屬水이니 火受剋 故로死也라. 五行之中에 必陽日篤 而陰日死는 乃見人之生機係乎陽 而命門眞陽之義를 不可不明也라. 手厥陰即心主包絡이니 與手少陰氣絶同 故로不別載라.

7. 難經懸解

心主脈하고 其榮色이라. 壬篤癸死는 水勝火也라.

8. 中國醫學匯海

虞庶註 心主血이니 血乃爲榮으로 榮華人身 故로有光澤之色이어늘 今脈已絶하야 血乃不行 故로人色夭하고 面黑如鰲而死니라.

9. 難經古義

此篇大意는 凡諸經氣血이 因病하야 經氣將絶之候이니 而諸經脈이 皆在肌肉中하야 其流深潛이니라. 何緣能得從外而候之邪아? 雖然이나 既已有斯理 則醫者亦不可不知焉이라. 唯其所主在腎 則以齒髮爲候오 於脾乃以脣反爲候며 於肝乃舌卷卵縮是候며 肺與心 則皮毛焦枯와 面色黑이 是外候之尤著明者라. 故로字傍加圈 以示初學者니라.

10. 難經裹腋

心之合은 脈也오 其華在面하고 其充在血脈이니 心絶則脈不通하고 血不流하야 色澤去也라. 故로面色焦黑如鰲也라.

【原文】

三陰⁽¹⁾氣俱絶者는 則⁽²⁾目眩⁽¹⁾轉⁽²⁾하고 目暝⁽³⁾이니 目暝⁽³⁾者 爲失志⁽⁴⁾라. 失志者 則志先死니 死 卽目暝也라.

【解釋】

(手足의) 三陰의 氣가 모두 끊어지면 눈이 아찔하면서 굴러 움직이게 되면서 안보이게 되고, 눈이 안보이면 意識을 잃게 된다. 意識을 잃은 것은 意識이 먼저 衰한 것이니, 衰한즉 눈이 안보이는 것이다.

【校勘】

〈1〉 三陰: 《靈樞》經脈篇과 《懸解》에는 五陰이라고 했다. 《本義》에서는 三陰은 手足經의 三陰을 가리킨다고 解釋하였으니 이것도 좋다.

〈2〉 則: 則뒤의 目眩轉부터 끝까지를 《靈樞》經脈篇에서는 '目系轉 轉則目運 目運者 爲志先死 志先死則遠一日半死矣'라고 하였고, 《難經懸解》에는 '目眩轉 轉則目暝 目暝者 爲失志 失志者 則志先死 志先死 則遠一日半死矣'라고 하였다. 다른 原文에도 死하는 期日이 있으니 本 原文에도 있어야 할것으로 思料된다.

【字句解】

(1) 眩: 어두울 현(暗也), 아찔할 현.

(2) 轉: 굴러 전(動運也), 돌 전(回也).

(3) 暝: 눈흐릴 명(目不明也), 눈멀 명(盲也).

(4) 志: 감정 지, 의사표시할 지. 意識을 뜻한다. 《校釋》에서는 神志로 解釋하였다.

【各家註】

1. 難經本義

三陰은 通手足經而言也라. 《靈樞》十篇作五陰氣俱絶이니 則以手厥陰與手少陰同心經也라. 目眩轉 目暝者는 卽所謂脫陰者目盲이니 此又其甚者也라. 故로 云目暝者失志 而志先死也라. 四明陳氏曰 五藏陰氣俱絶 則其志喪于內 故로精氣不注於目 하야 不見人而死라.

2. 難經集註

丁曰 所言三陰者는 獨是言足三陰也라. 足少陰者 腎也니 腎藏精與志라. 足厥陰은 肝也니 肝藏魂이오 通於目 故로絶則失志而亂魂去目眩也라. 楊曰 三陰者는 是手足三陰脈也니 此五臟之脈也라. 五臟者는 人之根本也라. 故로三陰俱絶 則目暝이라. 暝은 閉也니 言根絶於內而華絶於外라. 目者 人之光華也라. 眩은 亂也니 言目亂不識人也라. 腎藏精與志니 精氣已竭 故로曰失志也라. 三陰絶은 皆止得一日半死也라. 虞曰 五臟之脈은 皆屬三陰이오 五臟之脈은 皆會於目이니 今三陰俱絶 故로目眩目暝也라. 人之五志는 皆屬於陰이니 謂肝志怒오 心志喜오 脾志思오 肺志憂오 腎志恐이어늘 今三陰已絶하야 五臟皆失其志라. 故로無喜怒憂思恐이오 五志俱亡 故로曰失志也라. 楊氏言失志乃止言腎一藏也라하나 本經에 曰陰陽相離 則悵然失志는 此之謂也니라.

3. 校正圖註難經

三陰者는 手足三陰也라. 目眩者는 眩亂而見之不眞也라. 轉은 則瞳人反背 或朝上 或左右側也라. 以言乎瞑測無所見矣라. 志者는 五志也니 志死則無喜怒憂思恐 故로 死即瞑目焉이라.

4. 難經經釋

《靈》大惑論에 云五臟六腑之精 皆上注於目 而爲之精이라하고 前二十難에 云 脫陰者目盲이라하니 亦此義也라. 眩은 經作系라. 按컨대 三陰은 經作五陰이니 蓋包絡與心同候也 故로經文에 亦無手厥陰之候라. 《靈》大惑論에 云目者五臟六腑之精也오 榮衛魂魄之所常榮也며 神氣之所生也이니 故로神勞則魂魄散志意亂이라. (即은) 一作則이라.

5. 難經正義

三陰者는 手足三陰脈이니 此五藏之脈也라. 五藏者는 人之根本也라. 目眩者는 眩亂而見之不眞也라. 轉者는 目或反背 或朝上 或左右側也라. 目瞑者는 盲而無所見也라. 此는 三陰氣絶하야 精神俱去之候라. 失志者는 人之五志 各屬一藏하야 肝志怒오 心志喜오 脾志思오 肺志憂오 腎志恐이어늘 今三陰已絶하야 五藏皆失其志 故로無喜怒憂思恐하야 五志俱亡이라. 故로 曰失志即死也라.

6. 古本難經闡註

前言五臟之氣絶은 則以五行日干相剋之期로 應之오 此言三陰絶은 死不待日矣라. 目眩者는 目眩亂而見不眞也라. 轉者는 瞳反也라. 目眩 則無所見矣라. 志失 則不知喜怒之類也라.

7. 難經懸解

五陰은 五藏之陰也라. 五藏은 主藏五神이니 目瞑不見은 神敗光失也라.

8. 中國醫學匯海

虞庶註 五臟之脈 皆會於目이니 今三陰俱絶 故로目眩目瞑也라. 人之五志는 皆屬於陰이니 謂肝志怒오 心志喜오 脾志思오 肺志憂오 腎之恐이어늘 今三陰已絶하야 五臟皆失其志 故로無喜怒憂思恐이오 五志俱亡 故로 曰失志也라. 楊氏言失志乃止言腎一藏也라하니 本經에 曰陰陽相離 則悵然失志는 此之謂也라.

9. 難經衷腋

三陰은 通手足經而言也라. 《靈樞》作五陰이니 蓋以手厥陰與手少陰同心經也라.

五藏之精華는 上而注目이어늘 今五藏之陰氣俱絶 故로目眩轉而至目瞑이니 此爲五志皆失去矣라. 失志者는 則志先死也라. 即目瞑不知人而死이니 所謂脫陰者目盲是也라

【原文】

六陽氣俱絕者는 則陰與陽相離하니 陰陽相離 則腠理⁽¹⁾泄하여 絕汗⁽²⁾乃出호대 大如貫珠하고 轉出不流하니 卽氣先死라. 旦占⁽³⁾夕死하고 夕占⁽³⁾旦死니라.

【解釋】

六陽의 氣가 모두 끊어지면 陰과 陽이 서로 分離 되니, 陰과 陽이 서로 分離되면 汗구멍이 열려서 絶汗이 나오는 데, 크기가 구슬 목걸이 같고 汗이 나오기는 하되 흐르지는 않으니, 氣가 먼저 衰한 것이다. 아침에 보인다면 저녁에 죽을 것을, 저녁에 보인다면 다음 날 아침에 죽을 것을 豫測할 수 있다.

【字句解】

(1) 腠理: 汗구멍.

(2) 絶汗: 흐르지 않고 송글송글 맺혀서 끊어지는 汗. 즉 마디汗.

(3) 占: 점칠 점. 예측한다는 뜻.

【各家註】

1. 難經本義

汗出而不流者는 陽絶故也라. 陳氏曰 六府陽氣俱絶 則氣敗于外 故로津液脫而死니라.

2. 難經集註

丁曰 所言六陽은 是手足三陽也라. 後言陰與陽相離者는 手三陽通天氣 故로曰陽也 오 足三陽通地氣 故로云 陰也니 天地陰陽否隔하여 所以言陰陽相離也라. 是故로 腠理泄絶하여 汗乃出호대 大如貫珠하니 故로其死不移旦夕也라. 楊曰 此는 六陽氣絶이니 不出日死라하니 六陽氣絶之狀은 今略條之라. 經에 云 太陽脈絶者 其絶也는 戴眼反折瘰癧하고 其色白하고 絶汗乃出하니 出則終矣라. 少陽脈絶者 其絶也는 耳聾하고 百節盡縱하고 目環絶系하니 絶系一日半死오 其色青者는 乃死라. 陽明脈絶者 其絶也는 口耳張하고 善驚妄言하고 色黃하고 其上下經盛而不仁 則終矣라하니 此는 是三陽絶之狀也라. 前에 云六陽이어늘 今經曰三陽絶狀者는 手足諸陽脈絶에 其絶狀并同하니 所以不別出이라. 陰與陽相離者는 陰陽隔絶不相朝使也라. 腠理泄者는 陽氣已下하여 毛孔皆開하여 所以然也라. 絶汗은 乃汗出如珠이니 言身體汗出著肉如綴珠而不流散 故로 曰貫珠也라. 旦占夕死 夕占旦死者는 正得半日也니 惟少陽絶得一日半矣니라. 虞曰 陰陽相離하여 其位隔絶하여 腠理開疎하니 汗乃大出이라. 夫如是면 則六陽皆絶이니 其死明矣라. 況三陽之脈 亦有離合하여 太陽爲開오 陽明爲闔오 少陽爲樞며 開者는 司動靜之基오 合者는 執禁固之權오 樞者는 主轉動之微이니 三經不得相失이어늘 今六陽已絶하니 失其動靜之司하고 弛其禁固之樞하고 止其動轉之微하여 三經相失 故로 曰死也라. 六陽者는 《素問》曰 上下經乃成六也라.

3. 校正圖註難經

六陽者는 手足三陽也라. 陽氣衝外則溱理密이오 陽絶則溱理不固하야 陰不可得獨留하야 榮氣從溱理而外泄이니 人雖未死라도 氣已死矣라. 人以氣爲主하야 氣死면 人卽死이니 其占이 故在旦夕之間也라.

4. 難經經釋

陰不附於陽이라. <靈>終始篇에 太陽終者는 絶皮乃絶汗이오 絶汗則終矣라하니 라. 此二句明絶汗之狀이니 經文之所無也라. 氣屬於陽也라.

按컨대 <靈經>脈篇 無三陽分候之法하고 止有總論六陽氣絶一段이오 若終始篇及 <素>診要經終論이면 俱有三陽絶候法하니 今既以三陰三陽爲問이면 則當并引經文以證明之 尤爲詳備라. 又按컨대 此篇은 直是 <靈樞>經脈篇原文이니 所易不過數字오 并無發明이라.

5. 難經正義

六陽者는 手足三陽也라. 陰與陽相離者는 陰陽隔絶不相附也라. 夫陽氣衝外 則溱理密이오 陽氣絶 則溱理不固하야 陰不可獨留 故로毛孔皆開하야 陰氣亦從溱理而泄矣라. 甚則絶汗出이니 大如貫珠者는 言身體汗出著肉이 如綴珠而不流散 故로 曰貫珠也라. 氣屬於陽인대 陽絶 故로氣先死也라.

按<靈樞>經脈篇컨대 無三陽分候之法이오 止有總論六陽氣絶一節이라. 若終始篇及 <素問>診要經終論에 俱載三陽絶候法하니 今既以三陰三陽爲問이면 當引經文以證明之하야 補其未備라. 太陽之脈 其終也는 戴眼反折瘦癢하고 其色白하고 絶汗及出이오 出則死矣라. 少陽終者는 耳聾하고 百節皆縱하고 目環絶系하니 絶系一日半死라. 其死也는 色先靑이라가 白乃死矣라. 陽明終者는 口目動作하고 善驚妄言하고 色黃하고 其上下經盛而不仁하면 則終矣라하니 此三陽脈絶之狀也라. 夫太陽之氣 主皮毛이니 氣絶於皮 故로色白而絶汗出也라. 少陽主骨이니 百節盡縱은 則少陽之氣絶이라. 少陽屬腎이오 腎藏志하니 目系絶者는 志先死矣라. 陽明之脈은 挾口承目 故로口目動作이니 乃其經氣欲絶也라. 善驚妄言은 陽明之神氣外出也라. 色黃은 陽明之土氣外脫也라. 上下經盛은 胃氣絶而無柔和之象也라. 肌膚不仁은 則營衛之氣絶矣라.

6. 古本難經闡註

前言三陰絶은 死不待日이오 此言六陽絶은 死不待時이니 乃見陽重於陰이라. 氣先死者는 卽命門眞陽之氣先死也라.

7. 難經懸解

六陽은 六府之陽也라. 陽主外衝이니 陽亡表泄 故로出絶汗이라. 此篇全引 <靈樞>病傳文而字句微異라. 其訛舛之甚者를 依 <靈樞>正之라.

8. 中國醫學匯海

虞庶註 陰陽相離하여 其位隔絶하니 腠理開疎하여 汗乃大出이라. 夫如是 則六陽皆絶이니 其死明矣라

古屋玄醫曰 陽主表이니 表氣絶 則衛氣去하여 雖不如五臟絶而神去라도 陽氣去則 陰無所着하여 神去而死니라.

9. 難經古義

目瞑與絶汗出은 此其外候也라. 此二絶과 與前每經之絶로 其後大異者는 何오? 蓋 彼病以漸而終之候오 此則暴病急死로 諸經俱亡之兆라.

10. 難經表腋

六陽者는 手足三陽也라. 六府陽氣俱絶 則與五藏陰氣相離하여 陰失其守 故로 腠理發泄하여 汗乃出 大如貫珠而不流하니 爲氣先死라. 其死는 在旦夕之間矣라.

【考察】

二十四難은 二十三難의 마지막 原文의 “死各有形”을 이어서 三陰三陽의 氣絶의 徵候를 說明한 것이다. 이 難은 《靈樞經脈篇》에 모두 記載되어 있고, 特別하게 發明한 것은 없다. 다만 《靈樞經脈篇》과 《靈樞終始篇》 그리고 《素問診要經終論》에 비슷하게 記載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代表的으로 《靈樞經脈篇》의 內容을 選擇하여 紹介한 것 같다. 《內經》의 여러 곳에서 이야기 할만큼 重要한 內容이고, 그러한 內容을 《難經》에서도 소홀히 여기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清代 丁履中이 “其辭雖出於靈素이나 而暗者明之하고 繁者省之하고 複者略之니라”라고 하고 古本難經凡例에 “雖止八十一條이나 而內經之全旨已具라 …… 先讀難經하고 再讀內經하면 可也니라”고 하며, 元代의 名醫 滑伯仁이 “難經 八十一篇 辭若甚簡이나 然而榮衛度數와 尺寸位置와 陰陽王相과 藏府內外와 脈法病能와 與夫經絡流注와 鍼刺俞穴이 莫不該盡하니 ……”라고 한 理由일 것이다.

本難에서는 論難되는 것이 없고, 여러 註家들의 解釋이 서로 비슷하다. 그러므로 本 考察에서는 本難의 全體的인 學術思想을 簡略하게 論하기로 한다.

本難에서 敍述한 臨床症狀은 모두 危重할때 出現하는 症狀으로 經氣가 竭絶한 結果이다. 臟腑는 本이 되고 經絡은 標가 되므로, 十二經絡의 氣運은 臟腑로부터 나오고, 經氣의 虛實은 臟腑의 氣運의 盛衰에 의하여 決定된다. 그러므로 本難에서 論한 經氣絶의 症狀은 臟腑의 氣運이 竭絶한 症狀이다.

五臟은 外로 人體의 5體·5管·7竅 …… 등의 各各의 身體組織器官과 合하는데, 經絡의 轉輸의 作用에 의하여 그 機能을 發揮한다. 그러므로 臟腑나 經絡에 어떠한 病變이 發生하면 그 臟腑와 經絡의 相應部位에 일정한 症狀이 나타나는 것이요, 病變이 甚하다면 症狀도 危重하게 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例를 들어서 보면, 腎主骨하니 足少陰氣가 絶하면 骨髓가 滋養받지 못하여 骨枯하게 된다. 그리고 骨이 枯하게 되므로 肉이 骨에 붙지않게 되고, 그래서 齒長而枯의 症狀이 나온다. 또한 齒는 骨之餘이니 病이 더욱 進行되면서 齒에 까지 영향을 주어 齒長而枯하는 症狀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腎의 榮은 髮에 있으니 髮도 영향을 받으므로 無潤澤하게 된다. 이러한 症狀은 腎氣가 內絶하고 骨氣도 竭絶한 것으로 死亡에 가까운 것이다.

같은 方法으로, 腎主骨하니 足少陰氣가 絶하면 骨先死하여 髮無潤澤하고, 脾主肌肉하니 足太陰氣가 絶하면 肉先死하여 脣反하고, 肝主筋하니 足厥陰氣가 絶하면 筋先死하여 舌卷卵縮하고, 肺主皮毛하니 手太陰氣가 絶하면 毛先死하여 毛折하고, 心主血脈하니 手少陰氣가 絶하면 血先死하여 面黑한다.

手足三陰의 氣가 絶하게 되면, 目이 五臟의 精氣를 받지 못하고 神이 五臟의 藏作用과 五臟의 精氣를 받지 못하므로, 目眩轉 目瞑하고 失志하게 된다. 그리고 手足三陽의 氣가 絶하게 되면 陰陽의 氣가 分離가 되어 陽氣가 津液을 固攝하지 못하므로 絶汗이 나타나고, 結局 亡陰까지 招來하여 일찍 죽게 된다.

本難에서는 病이 危重해지는 時期와 죽게되는 時期까지 明示하였는데, 五行相剋의 法則에 의하여 說明될 수 있다. 足少陰을 例로 들면, 足少陰은 腎으로 水에 屬하고 戊己는 土에 屬하니, 土剋水하므로 戊日에 篤하고 己日에 死한다. 그 나머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IV. 結 論

23難과 24難의 研究를 通하여 얻은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23難

1) 12經脈과 督·任·蹻脈의 길이를 同身寸法에 의하여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手三陽의 脈은 3丈이고, 手三陰의 脈은 2丈1尺이고, 足三陽의 脈은 4丈8尺이고, 足三陰의 脈은 3丈9尺이고, 兩足蹻脈은 1丈5尺이고, 督任脈은 9尺으로, 모두 合하여 16丈2尺이다.

2) 經脈은 氣血을 行하게 하여 陰陽을 貫通하여 身體에 營養作用을 하는 것이다. 그 始作은 中焦로부터 쫓아서 手太陰과 手陽明으로 注行하고, 手陽明은 足陽明과 足太陰으로 注行하고, 足太陰은 手少陰과 手太陽으로 注行하고, 手太陽은 足太陽과 足少陰으로 注行하고, 足少陰은 手厥陰과 手少陽으로 注行하고, 手少陽은 足少陽과 足厥陰으로 注行하고, 足厥陰은 다시 돌아서 手太陰으로 注行한다.

15別絡은 모두 原(本 經絡의 絡穴)으로 부터 起因하여, 고리처럼 끝없이 돌면서 經絡을 서로 交通시킨다. 寸口와 人迎에 朝會하여 百病에 處하여 死生을 決定한다.

3) 終始는 診脈法의 紀綱이다. 寸口와 人迎은 經絡의 三陰三陽의 氣가 朝會하였다가 흩어지는 곳인데, 그러한 氣의 運行이 順調로운 것을 始라고 한다.

三陰三陽의 脈(氣)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요, 죽음에는 各各의 形態가 있으므로 이것을 終이라고 한다.

4) 本 23難은 <靈樞>脈度篇과 <靈樞>經脈篇과 <靈樞>終始篇의 重要한 內容을 모은 것이다.

2. 24難

1) 本難에서 敘述한 臨床症狀은 모두 危重할때 出現하는 症狀으로 經氣가 竭絶한 結果이다. 臟腑는 本이 되고 經絡은 標가 되므로, 12經絡의 氣運은 臟腑로부터 나오고, 經氣의 虛實은 臟腑의 氣運의 盛衰에 의하여 決定된다. 그러므로 本難에서 論한 經氣絶의 症狀은 臟腑의 氣運이 竭絶한 症狀이다.

5臟은 外로 人體의 5體·5管·7竅 …… 等の 各各의 身體組織器官과 合하는데, 經絡의 轉輸의 作用에 의하여 그 機能을 發揮한다. 그러므로 臟腑나 經絡에 어떠한 病變이 發生하면 그 臟腑와 經絡의 相應部位에 일정한 症狀이 나타나는 것이요, 病變이 甚하다면 症狀도 危重하게 되고, 죽을 수도 있는것이다.

腎主骨하니 足少陰氣가 絶하면 骨先死하여 髮無潤澤하고, 脾主肌肉하니 足太陰氣가 絶하면 肉先死하여 脣反하고, 肝主筋하니 足厥陰氣가 絶하면 筋先死하여 舌卷卵縮하고, 肺主皮毛하니 手太陰氣가 絶하면 毛先死하여 毛折하고, 心主血脈하니 手少陰氣가 絶하면 血先死하여 面黑한다.

2) 手足三陰의 氣가 絶하게 되면, 目이 5臟의 精氣를 받지 못하고 神이 5臟의 藏作用과 5臟의 精氣를 받지 못하므로, 目眩轉 目瞑하고 失志하게 된다. 그리고 手足三陽의 氣가 絶하게 되면 陰陽의 氣가 分離가 되어 陽氣가 津液을 固攝하지 못하므로 絶汗이 나타나고, 結局 亡陰까지 초래하여 일찍 죽게된다.

3) 本難에서는 病이 危重해지는 時期와 죽게되는 時期까지 明示하였는데, 五行相剋의 法則에 의하여 說明될 수있다. 足少陰을 例로 들면, 足少陰은 腎으로 水에 屬하고 戊己는 土에 屬하니, 土剋水하므로 戊日에 篤하고 己日에 死한다. 그 나머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24難은 23難의 마지막 原文의 “死各有形”을 이어서 三陰三陽의 氣絶의 徵候를 說明한 것이다. 이 難은 <靈樞>經脈篇에 모두 記載되어 있고, 特別하게 發明한 것은 없다. 다만 <靈樞>經脈篇과 終始篇 그리고 <素問>診要經終論에 비슷하게 記載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代表적으로 <靈樞>經脈篇의 內容을 選擇하여 紹介한 것이다.

參 考 文 獻

1.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年.
2. 成樂箕, 八十一難經解釋, 서울, 高文社, 1989年.
3.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年.
4.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서울, 成輔社, 1980年.
5.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成輔社, 1980年.
6. 北京中醫學院, 中醫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4年.
7. 唐湘清, 難經今釋, 臺北, 正中書局, 1983年.
8. 黃維三, 難經發揮, 臺北, 中國醫學院出版組, 1990年.
9. 凌輝星, 難經校註, 서울, 一中社, 1992年.
10.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年.
11. 王洪圖, 難經, 北京, 春秋出版社, 1988年.
12. 加藤宗博, 難經衷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年.
13. 本間祥白,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1965年.
14. 難經譯釋, 臺北, 昭人出版社.
15. 王叔和, 圖註難經脈訣, 臺南, 大孚書局, 1977年.
16. 王九思, 難經集註, 臺北, 中華書局, 1985年.
17. 滑壽, 難經本義備要, 臺北, 文笙書局, 1984年.
18. 滕萬卿, 難經古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年.
19. 葉霖, 難經正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年.
20. 丁錦, 古本難經闡註,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年.
21. 徐靈胎, 難經經釋, 徐靈胎先生醫書全集, 臺北, 烏州出版社, 1968年.
22. 黃元御, 難經懸解, 黃元御醫書十一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年.
23. 蔡陸仙, 難經, 中國醫學匯海, 서울, 成輔社, 1978年.
24. 千柄泰,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관한 考察, 大田,
大田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3年.
25.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年.
26. 民衆書林編輯局, 漢韓大字典, 서울, 民衆書林, 1987年.